

EMMANUEL

임마누엘 [제자호]

가서
제자 삼으라

특집

당신은 제자입니까? - 말씀과 함께 걷는 임마누엘교회 양육의 현장

시대를 분별하라 -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분별력 있게 자녀 키우기

젊은 부부 세미나 스케치 - 성품 교육

목자 부목자 수련회 - 내 삶의 터닝 포인트

교육과 훈련 -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제자 훈련

목장 소개 -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신생목장

신앙의 3대가 모이는 버마목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락스프링스목장

에녹 문학반 - 늙은이의 꿈

GO AND MAKE DISCIPLES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

표지 설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Contents

목차

06 제자호를 열며

담임목사 칼럼 - 제자입니까?

나를 세우는 말씀 -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자!

나에게 제자 됨이란

12 빛과 소금

믿음의 선진들

선교 간증

땅 끝에서 온 편지

시대를 분별하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분별력 있게 자녀 키우기

젊은 부부 세미나 스케치

젊은 부부 세미나 Q & A

성경적 부모 교실 - 자녀훈계 18계명

목자 부목자 수련회

32 특집 "당신은 제자입니까?"

말씀과 함께 걷는 임마누엘 양육의 현장

성경학교

여름 성경 학교 (VBS)

중고등부 제자훈련 (Disciple Training)

목차

68 실만한 물가

시가 있는 풍경

크리스찬 명언

에녹 문학반

임마누엘 카툰

도서실 신간 서적

사행시 - 에녹 평원

독후감

임마누엘 레시피

79 임마누엘 사람들

사진으로 보는 임마누엘

생각의 창

나를 살리는 찬양

신앙 간증

세례 간증

목장 소개 1, 2

목자 소개

행복한 사람들

제자입니까?

크리스천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교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에 등록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교인입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별하여 둘째 부류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자들 중에 특별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셋째 부류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교인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교인이나 신자가 아니라 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은 필연적으로 VIP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교인이 되게 하고, 자라서 신자가 되고, 더 나아가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사람, 곧 제자를 재생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입니다(마28:19-20).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VIP들이 교인이 되고, 교인들이 신자가 되고, 신자들이 제자가 되는 과정이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처럼 꽉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VIP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문턱이 너무 높으며, 또한 교회 안에 겨우 들어왔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인이나 신자에 머물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끊임없이 VIP들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 들어와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으며 교인이 되고, 교인이 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신자가 되고, 신자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배우며 성숙하여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나가 디아스포라 나그네로 살면서, VIP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그들이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에 있는 교회'(고전16:19, 골4:15, 몬1:2) 곧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아기들이 VIP로 태어나서 딸은 엄마에게, 아들은 아빠에게 제자훈련을 받으며 자라서 가족의 성숙한 일원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VIP들이 교인이 되고, 교인이 신자가 되고, 신자가 제자가 되는 최상 최고의 환경은 가정교회 목장입니다.

여러분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라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신자가 되십시오. 아직 신자에 머물고 있다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제자로 자

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셨으면 VIP들이 교인이 되고,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낳은 제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정교회와 교회 안에서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비로소 영원의 관점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삶, 곧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글 | 손원배 담임목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후13:5)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도로서 바르게 믿고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다. 주일성수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도 하고, 십일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인정하며 나는 괜찮아, 잘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교만이다. 말씀을 들어도 머리는 이해하나 삶은 하나도 살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이다. 잘 못 됨을 깨닫지도 못하며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고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신다. 여기에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면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한다.

“너를 낫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3)

우리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주인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여러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날마다 읽어 마음에 두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5:13)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그 능력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말씀을 알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매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갈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말씀은 진리다. 우리는 진리에 기초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 감정 의지로 사실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보다는 전문가의 말, 내 과거의 경험, 현재의 상황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말씀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마음을 비울 때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다. 말씀은 마음에 심겨져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말씀이 아무리 많이 내 안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형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말씀이다. 심겨진 씨가 씨가 없어지고 그 형질은 나타나듯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어 자라 말씀대로 풀어져 그 형질을 나타내어 삶을 변화 시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 1:17) 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거듭남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 수 있다.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숙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한다. 신앙의 성숙은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 2:20)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주인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자신이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한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자. 성령충만을 위하여 날마다 주께 기도하며 구하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13)*

글 | 정정자 (새빛 네팔 목장, 시온찬양대)



나에게 제자 됨이란

나에게 제자됨은 훈련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국교회의 프로그램에서 시작된 제자훈련은 소수의 정예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고 또 30분 단위로 매일의 시간표를 작성하는 등 세상을 향한 관심에서 눈을 돌려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곳으로 발을 딛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훈련을 2년 한 후 소그룹 리더로 세워지며 '가르치던지 배우던지'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으며 때로는 부담으로 때론 기쁨으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훈련의 시간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여전히 저에게 힘든 숙제였습니다. 2008년 미국에 와서 임마누엘교회에 등록하고 목장을 맡게 되며 "이곳에서 목자가 하는 일이 제자 삼는 것이구나" 느꼈고 그렇게 가볍게 시작했던 그 길에서 점차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며 목자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목장을 통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알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제자됨의 현장은 바로 여성예배입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지독한 traffic을 뚫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모여 예배합니다. 젊은자매들은 아기들을 child care 방에 맡기고 찬양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치유되며 회복을 경험합니다.

많은 소그룹을 통해 삶을 나누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깨닫는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그동안 수 많은 자매들이 훈련받고 또 양육자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성예배와 지체들을 위한 기도회 힘쓰는 중보기도 팀이 있고 자녀들과 학교를 위한 기도회 힘쓰는 마이피 기도팀이 있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한 것을 나누는 큐티 나눔방을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가지며 함께 성장합니다. 본문말씀을 정하고 초신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통해 성경공부하는 커피브레이크, 주제별 성경공부 등으로 말씀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그 동안 많은 자매들이 여성예배를 통해 세례를 받고 훈련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여성들이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르는 목마름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진정 좋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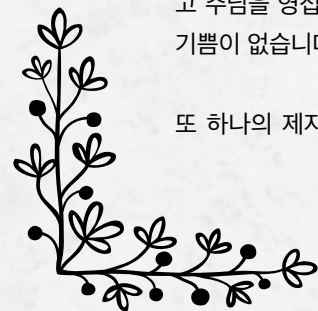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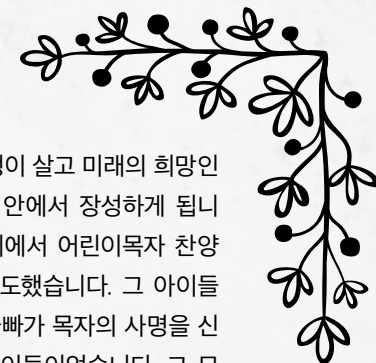
내와 엄마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저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하여, 아니면 참아내며 엄마와 아내 그리고 자식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음을 삶에서 느낍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동료가 필요하고 말씀으로 훈련되고 체질화 되는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여성예배에는 참 똑똑하고 예쁜 자매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거부했다면 어찌됐을까요? 많은 자매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죄악과 싸웁니다. 남들 다 아무렇지 않게 가는 쉬운 길을 포기하고 굳이 좁고 어려운 길을 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이러한 젊은 자매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유태인을 지칭할 때 엄마쪽이 유태인이야 그 아이를 유태인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믿음의 엄마 밑에서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참 복됩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매들을 불러내어 함께하며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이 회복되어야 가정이 살고 미래의 희망인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목자 부목자 수련회에서 어린이목자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 엄마 아빠가 목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집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무릎을 쳤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떤 말보다 기도하며 찬송하는 순종의 삶을 보여준 부모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제자들을 멋지게 길러냈다는 것입니다.

매주 드러지는 예배 속에서 '배우던지 가르치던지' 라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배우고 깨달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섬기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서는 것이 고여 썩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어렵듯이 알아갑니다. 제자 됨은 눈에 보이는 거창한 타이틀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처한 자리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먹고 격려하고 일으켜 건게 하는 복된 예수의 마음에서 출발 한다는 것을.

글 | 전기열 부목자 (아릴락 목장, 여성예배 부장)



믿음의 흔적을 찾아서
- 평양 선교의 주역

그레이엄 리 (1861 - 1916)



평양대부흥 회개와 성령운동을 일으킨 선교사!

그레이엄 리, 1916년 캘리포니아 길로이에서 잠들다 & quot;만약 회개가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회를 선용한다면 한국은 근대에 기독교화된 첫 민족이 될 것이다. & quot; 1907년 평양대부흥을 직접 목도하고 돌아간 존 모트가 한 고백이다.

평양선교의 기적은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 무대의 주역은 그레이엄 리(Graham Lee·사진)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평양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교사도 드물다. 새뮤얼 마펫과 함께 평양선교부를 개설하고 장대현교회를 개척, 담임했으며 평양 전역에 많은 교회를 분립했고 평양선교의 기적을 창출했다. 1907년 1월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평안남도도사경회 때 평양대부흥

을 견인한 사람도 그였다. 과장인지 몰라도 그가 없었다면 평양선교의 기적과 평양대부흥은 일어나지 않았거나 다른 모습으로 진행됐을지 모른다.

“내가 가장 선망하는 한 사람”

평양대부흥이 한창 진행되던 1907년 한국을 방문해 여러 선교지를 둘러본 미국의 잡지 ‘아웃룩’의 기자 윌리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필자가 미국을 떠난 후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선망하는 한 사람, 그의 여러 면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탐날 가치가 있는 듯한 그 사람은 평양의 그레이엄 리다. …수백명이 그를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라 부른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일을 힘차게 돕고 있는 중이다.” 다른 글에서는 이렇게 썼다. “한국 평양의 그레이엄 리가 신었던 신발보다 더 닳아빠진 신발을 신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레이엄 리는 성령이 이끄는 사역을 사모했고 기도했고 실천했다. 1902년 그는 학생선교자원운동 국제대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선교사역의 시작 때부터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가장 적절한 자리에 위치시켜야 한다. …성령 하나님이 전 사역을 지배하게 하셔야 한다.” 그레이엄 리가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최우선 자리에 올려놓고 사역했는가를 보여준다.

평양 선교의 기적을 이끌어 그레이엄 리는 1861년 미국 일리노이 록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레이크 퍼리스트 아카데미, 프린스턴 대학, 매코믹 신학교를 졸업하고 1892년 복장교교 선교사로 내한했다. 무어, 밀러, 스왈른 부부가 입국 동기다. 그레이엄 리는 1894년 결혼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 아내 웹(Blanche Webb)과 함께 돌아왔다.

미국의 모교회는 그들을 파송하면서 평양에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길 기도했다. “모든 교회는 이 강박하고 유연성이 없는 토양(평양)에 이들 선교사가 선한 씨를 심을 수 있게 성령의 부으심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레이엄 리와 그의 동료, 그리고 모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최우선했다. 게다가 그레이엄 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 그 결과 성령이 이끄는 선교지 평양은 해마다 기적을 창출했다.



1898년 평양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평양 이전의 선교 기록은 우리가 아는 대로 놀랍게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 해의 역사는 실질적 결과에 있어 이전의 어떤 해보다 능가했다.” 그로부터 5년 후 1903년 그레이엄 리는 이렇게 보고했다. “어제 우리는 평양에서 성찬식을 거행했다. …교회당은 사람들로 완전히 꽉 찼다. 1500명은 참석한 것 같다. 이 중 580명은 입교인(세례교인)이다.” 평양선교는 한국선교의 기적을 견인했고 장대현교회는 설립 10년 만에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다.

평양대부흥운동 놀라운 기도응답

그레이엄 리와 평양 주재 선교사들은 성령의 부으심을 사모하며 기도했다. 그런 가운데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린 하디의 평양선교사 사경회와 9월 하워드 애그뉴 존스턴의 서울 사경회는 그들 모두에게 ‘벤엘’이었다. 평양 선교사들은 교파와 연령을 초월해 매일 기도회를 가졌다. 평양 교인들도 “성령의 부으심을 위해 매일 1시간씩 기도하기로 약속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기도회는 놀랍게 응답됐다. 1907년 1월 2~15일 장대현교회에서 평안남도도사경회가 열렸다. 그러던 14일 저녁집회 때 간단한 설교가 끝난 후 그레이엄 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기도의 함성이 하늘을 향해 포효했다.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900명을 돌려보낸 후 남은 600명은 새벽 2시까지 자신들의 죄를 통회 자복하며 기도했다. 성령의 부으심이 문자적으로 임했다.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임재였다. 이튿날 성령의 역사는 더 강했다. 장대현교회에서 발흥한 평양대부흥은 평양 전역과 전국의 주요 도시로,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됐다. 부흥이 임하는 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나타났다.

1907년 2월 평양남산현교회에서도 강력한 회개를 동반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는 것처럼 울부짖었다. 성령께서 평양에 모인 부인사경회 때 임하셨고, 평양 송실대 개강수련회 때도 임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너무도 강력하게 학생들을 감동시켜서 학교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정리 | 주은혜 (북한 두란노 목장, 수요 찬양 주방섬김팀)



코스타리카를 다녀와서 1

이번 선교에 동참하게 된 동기를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래 전,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제 자신도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얼굴, 구릿빛으로 까만 아이 하나를 제가 품고 기도하며, 평평 울며 하나님께 '왜 그러셨느냐고 울며 하소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소연과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도,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수 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도 답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는데 김한경 권사님과 다른 얘기를 하던 중 이번에 코스타리카를 같이 가자는 제의를 받고, 아무 생각없이 승낙을 하긴 했으나 가기 전까지도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미경 집사님의 배려로 이끌려가던 중 아무 준비없이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준비 기도를 하던 중에, 그전에 보여주신 형상에 대한 의문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셨는지요? 왜 알지도 못하는 얼굴 까만 아이를 붙잡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해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라며 한동안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 곳은 나의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이다. 네가 안고 있는 그 아이는 그 곳의 죄에 놀려 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의 애통하는 눈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너는 가서 잠잠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느끼고 그 곳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려 보내고 오라”**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사랑을 흘려 보내고 오리라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교 사역에서 맡았던 부분은 음식과 돋보기 안경 사역이었습니다. 주방 봉사는 많이 해보았으나 돋보기 안경 사역은 처음 해보는 사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생소한 스페니쉬로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하나 하는 부분이 조금 긴장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심미경 집사님께서 만들어 주신 선교 가이드북 안에 있는 스페니쉬 버전을 펴놓고 먼저, ‘하이’라는 의미의 스페니쉬 ‘올라’로 시작해서 말문을 트고 안경을 돗수대로 번갈아가며 끼어 보게 하고, 좋으면 ‘비엔?’ 하고 묻고, 좋다고 하고 잘 보인다 하면, ‘기회는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간 스페니쉬 성경 중에 요한 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잘 보인다고 좋아서 입이 귀에 붙었습니다. 스페니쉬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힌 후, 그 아이들 중에 영어를 알아듣는 아이들도 더러 있어서, 영어로 써서 책받침처럼 만든 이반지 큐브 그림을 들고, 영어를 읽어보라 했더니 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니,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기 위해 매일 바이블을 읽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삶을 권유했더니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영어 반, 스페니쉬 반으로 영성하게 예수님 영접은 시켰습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데는 늘 상대방의 거절함에 대한 두려움때문에 장애가 되어 열매가 없었던 제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처음 해보는 것에 대해 자부심도 생기고 힘이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태껏 보아왔던 인디안들의 모습과 무엇인가 다른 느낌의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여쭙판더니 그곳은 마초 문화가 자리잡고 있어서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셨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눈이 많이 나쁜 17살 먹은 고등학생 딸인 여자 아이가 옆에 서서 살 먹은 딸 아이를 데리고와서 진료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각나서 가슴을 움켜쥐고 울고 싶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창 받아야 할 나이에, 부모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 어린 나이에 남자 아이들의 폭력에 휘둘렸을 그 아이들, 그렇게 내팽개쳐진 아이들이 또다른 가정 폭력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그 곳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돋보기를 쓰러 오며 예수님 영접 하였던 한 분



한 분을 안아드리고 보내며, **“앞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 나같은 보잘 것 없는 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눈물을 마르게 해 드려야 할까?”** 하는 마음의 여운이 남았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선교 여정 속에서도 수시로 그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며, 저에게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셔서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곳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디가 되었는지 보내시는 곳곳마다, 마음 주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나며, 주의 이름과 영광이 열방 곳곳까지 선포되어지길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는 돋보기 안경 사역이 활성화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의 눈이 뜨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성경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는, 귀한 사역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제 삶에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를 잊지 못할것 같습니다. 의미깊고, 귀한 사역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했던 모든 팀원들, 모두 한 마음으로 사역할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와 영광을 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글 | 한 원 부목자 (니제르 목장, 산상기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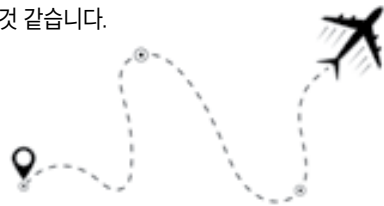




코스타리카를 다녀와서 2

첫번째 선교-

이번 선교는 저희 가족 모두가 처음이자 함께 하는 선교 사역이라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선교였습니다. 원래 제가 맡은 사역은 아이들과 어른 이발사역이었는데 선교과정에서 추가된 태양광 사역에 같이 동참하면서 사정이 달라 지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저희들과 인도오 마을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항 출발

선교사님께서 선교 오기 전에 당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교 전에는 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당부였습니다. 해외 출장 복귀하자마자 가족들과 밤새 짐을 싸고 새벽 두시반에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큰 아들 여권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집안을 30분간 들쑤시고 나서야 조용히 아들 방에서 나오는 여권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공항을 달리면서 선교사역이 하마터면 서로 원망하며 부부싸움 여행이 될 뻔 했다면서..

선교 물품

6월 19일 무사히 코스타리카에 도착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선교 물품이 세관에 잡혔습니다. 선교 물품이라고 설명을 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말을 바꾸어 개인 용품으로 얘기를 하니 선교 용품이라고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찾아가라고 하는 세관원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지라 돈을 내고 찾아가겠다고 하자 내일 보세 창고로 가야 하며, 빨라도 3일 정도 통관세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 했지만, 내일 다시 해결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팀원들과 공항을 빠져나와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팀원들께서 제가 세관원이라 실랑이 하는 동안 통성기도 해주셨습니다. 늦었지만 저희가 경험한 내용을 뒷편 비행기로 오는 다른 팀들께 미리 알려드려서 세관에 무사히 잘 통과 되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음 편으로 오시는 팀들의 경우는 의료물품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품목이었고 무사히 잘 공항을 빠져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코스타리카 통관

다음날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현지 사역 간호원 엘레나와 같이 보세 창고를 찾았습니다. 공항 관계자마다 답이 다 틀려서 2시간만에 관계자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관계자한테 설명을 하고 오늘 물건을 찾지 못하면 인도오 선교지역에 봉사활동을 갈 수가 없고 기다리고 있는 100-200명의 인도오 가정들을 도와줄 수 없다면서 사정을 하였습니다. 세관 직원의 협조로 제가 수입업자로 시스템에 등록을 하여 통관이 되었고 40% 이상 세금을 물리는 코스타리카를 세관을 보면서 왜 물가가 비싼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통관을 했지만 창고에서 물건을 빼주지를 않았습니다. 보세창고 복도에서 하염없이 5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우버를 타고 돌아가는 중에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찾아가라고 7 box를 우버 택시에 구겨 넣고 저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지로 이동해서 도착하니 밤 10시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의료 봉사선교 소식을 듣고 산을 타고 수시간 씩 걸어서 오신 가정들이 많은데 만약 선교 물품이 없어 은혜를 나눌 수가 없었으면 참 힘들었을 텐데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 해주셨습니다.

태양광 준비

선교사님께서 준비하고자 하신 태양광 제조사가 없어서 전에 써보지 못한 것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고 다시 얼마나 잘 충전되는지 실험해보고 충전이 다시 잘 안 되어 좀 더 큰 태양광 판넬을 다시 사고, 전압이 맞지 않아서 dc dc converter를 구입하고 단순히 간단히 나누어 주려고 했던 태양광선교가 많이 복잡하게 되었지만 다음 번 태양광 설치를 하는 선교가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정글 속에 있는 집들의 태양광 설치는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정글 속에 있는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제 발걸음으로 간다면 두시간 걸릴

거리를 40분 만에 산에서 산을 왔다 갔다 한다는 아이들의 설명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바람에 등산화를 신지 못하고 며칠 전 비가 내린 정글을 미끄러져 가며, 가다가 뱀도 발견하고, 벌레한테도 물리면서... 생각해 보니, 사전에 이렇게 힘든가를 알았다면 아마도 선교에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위현량 장로님과 엘리사라는 통역 사역분과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하였는데 불이 들어오고 휴대폰도(기존에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은 학교에서 충전해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충전을 할 수 있다는 놀라움에 무표정한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짓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산속에 있는 인도오 가정

그곳에 사는 인도오 가정은 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불은 한번도 세탁하지 않은지 수년은 되어 보이고 그 안에서 잠을 자니 피부병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은 보통 개와 닭들과 같이 지내고 바닥도 흙바닥이라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좋은 위생과 저녁에 조금이나마 불을 밝힐 수 있는 전등이 오래 가기를 주님께 기원 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도 쉽지 않은 파나마를 통해서 오는 비행기였지만 무사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선교의 손길이 인도오 가정에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 되고 교육의 기회를 주셔서 그곳 사람들이 보다 더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훌륭한 가정으로 성장하였으면 합니다. 얼굴 표정이 없는 인도오 가정에 즐거운 웃음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현지 사역하는 선교사님 내외분의 선교사역과 YWAM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 사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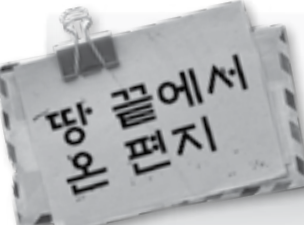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음 번에도 코스타리카 태양광팀이 계속 이어져서 선교 마지막 날 태양광 소식을 듣고 4시간을 걸어서 오신 인도오 가정에 불을 밝혀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코스타리카 선교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 | 김대승 (코스타리카 목장)



Solar Energy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담임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이동의료사역을 하고 있는 전영진 홍수진 선교사입니다.

부족한 저희를 지난 선교사대회 때 초청해주셔서 극진한 환대를 해주시고, 또 금번에 이렇게 훌륭한 단기선교팀을 보내주셔서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 저희가 산호세 단기팀을 받을 때는 여러가지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16세부터 80세로 구성되었고 특히 절반 이상이 선교지 경험도 없다는 분들이라 잘 해낼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산호세 팀은 전도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팀장들의 지휘 아래 흡사 잘 훈련되고 정비된 조직원들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은 바쁜 와중에도 특별히 제가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에 50여명의 선교사들에게 정성이 가득한 한식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팀원들은 비좁은 미니버스를 타고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산속 인디안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해충들이 득실거리는 인디언 학교바닥에서 자고, 화로가 1개밖에 없는 주방에서 100명분 이상의 밥을 할 때도, 하나뿐인 화장실을 40여명이 나눠서 사용함에도 불평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벼룩과 풀벌레에 물려 피부가 붓고, 알러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진흙탕에 빠지고, 산길에 미끄러져 무릎이 다치고, 발목이 빠이고, 손바닥이 다 까였음에도, 산 속을 하루종일 걸어다녀 온 몸이 땀으로 범벅되었어도, 기쁘게 웃고, 즐겁게 사역하는 모습들이 선교지의 불편함을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서 저를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20년의 사역기간 중 가장 훌륭한 팀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팀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들 하셔서 다음에는 절대로 안 온다고 하실까 싶어 두렵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오신다면 저희들은 무조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의료팀은 환자들을 성심껏 치료해주었고, 태양광 패널 설치팀은 전기가 없는 가정에 성능좋게 개량한 태양등을 설치해주었습니다. 이미용팀, 예배팀, 어린이 사역팀, 주방팀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특히 팀원들이 태양등을 설치하기 위해 산 속 인디안마을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발걸음들은 마치 지상에 내려온 천사들의 행군과도 같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분들의 노고에 뭐라고 표현해드릴 수가 없지만 담임목사님께서 주실 격려의 말씀은 이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임마누엘 장로교회 단기선교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훌륭한 단기선교팀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22.2019

코스타리카에서 전영진 홍수진 올림.

프레즈노, 하모니 교회에서

HARMONY KOREAN CHURCH
AISAN & HMONG MINISTRY
1835 N.WINERY AVE
FRESNO CA93703
559.999.8625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프레즈노에 아시안 사역은 많은 변화를 견디어 내며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OUTREACH 를 진행 중이며 특별히 어른들을 위해서 한방팀이 꾸준히 매주 마다 봉사를 해주셔서 현재까지 100여명의 몽족,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기타 어른들이 오고 있으며 그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복음의 단비를 뿌려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소식은 하모니교회 청년들 가운데 7명이 몽족 선교를 위해서 태국으로 갑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프레즈노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한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 청소년들입니다. 가족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선교를 갑니다. 기간은 6월16-25일까지입니다. 프레즈노에서 15명이 출발합니다. 의료진과 저희 교회 몽족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3명이 합류하고 태국에서 선교사님과 통역자들이 함께 하며 전체 24명이 협력하여 선교를 할 예정입니다.

태국북부 국경지역, 라오스와 미얀마, 태국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몽족들을 중심으로 저희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 학교를 하루종일 빌려서 전체 학생들에게와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의료팀은 건강체크와 약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각 동네마다 학교는 그 마을에 중심입니다. 학교장들이 모두 저희팀을 환영하여 학교를 휴교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의사를 보게 하고 복음잔치를 위해서 모든 교실을 내어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약3000명 이상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프레즈노에서 전도되어 지금은 저희 사역에 보조 교사로 활동중인 청년들이 직접 태국 북부 몽족 마을에 가서 VBS를 할 예정인데 정말 눈물 나게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소수민족으로 미국에서 살던 청년들이 자기 고유한 언어로 직접 골짜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올해도 프레즈노에서 6주간 VBS 가 열립니다. 이미 6개 교회와 팀들이 계획을 잡고 이곳에 오셔서 협력 할 것입니다. 준비와 그리고 이곳에 통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6주간을 잘 견디어 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사용중인 건물 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저희 센터가 속히 마련되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반기에 아웃리치 팀이 잘 협력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선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자비량 선교사로 살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도록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모니교회에서 황인주선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분별력 있게 자녀 키우기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image)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복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분의 손길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과 논란을 일으키며 인류의 역사에 큰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반격하는 흐름이 역사가 되어 대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화론적 사고에서 시작한 유물론은 마르크시즘(Marxism)으로 발전하여 공산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집단주의적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사회주의 제도를 만들어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분되었지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마침내 한 세기 동안 대결구도였던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걸어서 자유 민주주의가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죽지 않고 오히려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이라는 한 차원 더 세련되고 감각적인 옷으로 갈아입은 채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인권, 인종 차별금지, 다문화 포용, 관용, 인도주의, 노동자 권익 보호, 여성 차별금지, 환경보호, 세계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선한 얼굴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체주의, 세속주의, 진리가 없는 유토피아 사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흔들며 가정과 학교, 교회를 파괴하려는 거대한 맥락입니다.

마르크시즘이 경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네오마르크시즘은 문화에 초점을 맞춰 인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합니다.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의 ‘성자유, 성혁명, 성정치’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성적 욕망을 충족하도록 부추기지요. 성(性)은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며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

한 사상들이 현대의 문화가 되고 유행처럼 번져 우리 삶과 자녀들의 교과서 속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우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네오마르크시즘 시대 속에서의 자녀교육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로마서 12:2)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며, 셋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시는 일과 나를 향한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네오마르크시즘의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마음과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자녀를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영숙, 2005)입니다. 성품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의 표현입니다. 선한 것이 가득하면 선한 성품이 되고 악한 것이 가득하면 악한 성품이 되지요.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 감정, 행동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따른다면서 악을 본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히 흘려보내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본받으며 진리 안에서 성숙해질 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9:24)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향해 경청하시고 긍정적인 태도로 기뻐하시며 배려와 감사, 순종으로 몸소 보여주신 ‘사랑’의 성품과, 인내·책임감·절제·창의성·정직·지혜로 ‘공의’로우신 그분의 성품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가 깊이 알고 배움으로써, 세상의 일그러진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 이영숙 박사

(젊은 부부 세미나 강사, (사)한국성품협회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성품이 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품’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품이 대체 뭘까요?” 6월의 첫날 EM 예배실을 찾은 약 90명의 임마누엘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영숙 박사의 질문에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성품이 좋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하지만 정작 ‘성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영숙 박사는 “우리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느라 정작 가장 귀중한 가치를 자꾸 잊는다”며 “성품은 변하지 않는 나의 가치이자 후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가는 우리의 영혼과도 같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성경만큼 좋은 교재는 없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며 열강을 이어갔다.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지난 6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영유아부, 유치부 학부모 및 전 성도를 대상으로 이영숙 박사를 초청, ‘젊은 부부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강연을 위해 한국에서 건너온 이영숙 박사는 사단법인 한국성품협회 대표이자 좋은나무 성품학교 설립자로 한국에서 성품교육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성품이라는 단어를 교육에 접목해 ‘한국형 12성품교육론’을 창시했고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 특성에 맞는 성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1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화목한 부부관계 만들기(2부)를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특별히 0~3세 영유아까지 차일드케어 제공, 갓난아기 때문에 쉽게

시간을 낼 수 없는 부부들이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영숙 박사에 따르면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좋은 성품은 우연히 타고 나가거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성장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훈련할 수 있을까?

이영숙 박사는 이를 구체적으로 ‘공감인지능력’(사랑)과 ‘분별력’(공의)으로 정의하며 이를 위해 12가지 성품교육(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을 통한 교육방법을 소개했다.

또 이영숙 박사는 일상생활에서 행복한 관계 맺기를 위한 비밀로 TAPE 요법을 소개했다.

TAPE 요법은 Thank you(감사하기), Apologize(용서구하기), Please(요청하기), Express(표현하기)를 생활 속에서 쉬지 않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강의 후에는 소그룹으로 흩어져 강의 소감과 더불어 영유아 부모로서 교회에 바라는 점을 함께 나눴다.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아쉬움부터 “아이 보느라 하루하루가 바쁜 자신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영숙 박사는 “한국과 비교해서 부부가 함께 참석한 분들이 많다.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다”며 “임마누엘 교회에는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아빠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자녀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달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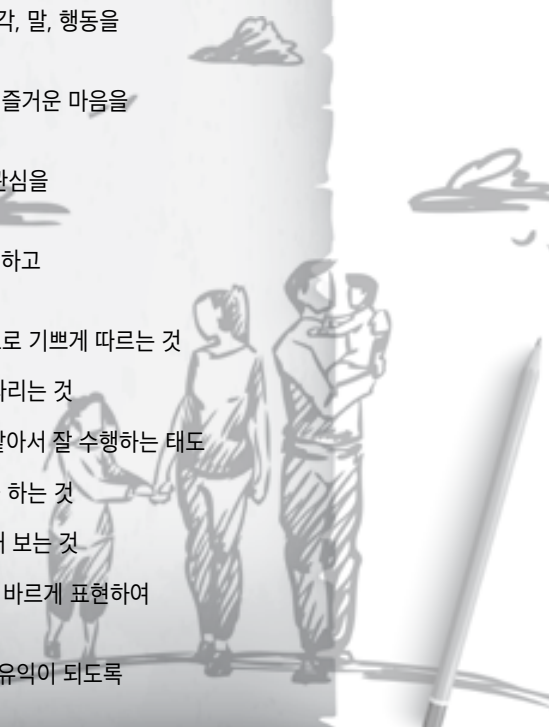
글 | 이건순 (브니엘 목장)

[행복한 관계 맺기의 비밀 ‘TAPE 요법’]

1. **감사하기 :**
모든 관계의 문을 여는 첫 단추로 감사를 시작할 때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진다
2. **용서구하기 :**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때 관계가 살아난다
3. **요청하기 :**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를 때 관계가 어려워진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요청한다
4. **내 마음 표현하기 :**
감정을 표현할 때 친밀한 마음을 갖게 된다. 숨겨진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습관을 통해 관계를 풍성하게 맺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이영숙 박사의 ‘한국형 12성품교육’ 12가지 주제]

1. **경청 :**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2. **긍정적인 태도 :**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3. **기쁨 :**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태도
4. **배려 :**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 보살펴 주는 것
5. **감사 :**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6. **순종 :**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
7. **인내 :**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8. **책임감 :**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
9. **절제 :**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10. **창의성 :**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
11. **정직 :**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 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12. **지혜 :**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는 능력



DID YOU KNOW?

Q

아이에게 “안 돼”,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쓰지 않는게 좋나요?

A

부모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면 아이도 부정적인 아이가 됩니다. “안 돼”, “하지마”라고 말하기보다는 “~게 하는게 더 좋아요” 라고 표현해 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들었고 문화적 습관으로 ‘배불러 죽겠어’ ‘슬퍼 죽겠어’ 라는 부정의 언어를 많이 써 왔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긍정의 언어가 습관화 되지 않았기에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언어로 반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긍정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더 좋아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말의 어감이 다르기에 긍정적으로 바꿔 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Q

밥 먹을 때 한 자리에 앉아서 먹지 않고 돌아다니는 5살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엄마의 욕구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엄마는 밥 먹을 때 즐겁게 밥만 먹으며 대화하고 싶구나. 밥은 이렇게 식탁에서 먹는 것이란다. 이제부터 밥 먹으라고 한 번만 말하면 식탁으로 달려오기 바란다. TV랑 책은 밥 먹고 보는 거야. 이게 우리 집 식탁 예절이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사정하듯 먹이는 것은 오히려 나쁜 버릇을 길러줍니다.
 밥 먹기로 한 시간에 약속을 안 지키면 먹을 수 없고 다음 시간까지 기다려야 함을 알려주고 단호히 약속을 지켜 나가셔야 다른 일로도 아이에게 끌려 다니지 않아요.
 5살이네 예쁜 종을 마련해 종을 치면 달려오는 게임을 하거나 아이가 먹을 음식을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이나 사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밥 먹는 시간이 즐겁고 창조적인 시간이 되도록 시도해 보세요.

Q

감정 기복이 심한 다섯 살 남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어린아이들은 감정부터 발달하며 아이들에게 감정을 가르치면 전두엽에서 감정을 인지하고 사고하며 반응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울고 자꾸 짜증내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하나하나 반응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로 커가게 됩니다. 훈계의 방법 중 하나 무시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짜증을 낼 때 “네가 짜증을 내면 엄마 아빠는 들을 수 없어.” 네가 좋은 말로 말하면 그때 들을게”라고 얘기하세요

Q

8살 아이 하루에 20-30분 게임을 하게 해주는데 게임하는 날은 깊은 잠을 못자요. 게임을 하게 하면 안되나요?

A

아이들의 두뇌는 게임과 영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기계와 함께하는 세대며 그들의 문화이기에 아예 컴퓨터와 같은 기계를 사용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주면 빠져들어가게 되고 시간을 정해서 약속대로 조금씩 해야하는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 절제할 수 없을 때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책을 보고 자료를 찾고 부모가 아이에게 성경과 책을 읽어주세요. 책을 통해 습득하는 아이들이 정서 어휘력 인지발달이 더 좋아집니다.

Q

아빠랑 목욕을 안 하려고 하고 무조건 엄마와 목욕하려는 아이 어떻게 달래야 하나요?

A

유아기는 질서감이 극치로 달하기에 질서와 규칙이 어그러지면 힘들어 합니다. 발바닥부터 닦이는 엄마와 목욕하는 순서에 익숙해있는 아이에게 머리부터 감기는 아빠와 목욕하게 되면 아이는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엄마와 목욕하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패턴으로 배우기에 매일 매일 아이들의 생활을 패턴화시키는게 좋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목욕시키는 순서를 보고 그 순서대로 따라 해주면 아이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자주해주면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Q

이미 뚜렷한 관심사가 생긴 영유아에게 어떻게 성품교육 쪽으로 관심사를 길러 주나요?

A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품교육은 딱딱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것이기에 부모가 즐기면서 재미있게 가르치도록 해 보세요. 예를 들면 매일 키재기표 확인을 통해 상품의 키 또한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하세요. “~야, 네 키가 오늘은 이만큼 자랐구나. 그럼 상품의 키는 얼마나 자랐나 보자. ~의 상품의 키 또한 이만큼 자랐네.” “~야, 친구의 말을 잘 경청했구나. 경청 점수 백점!” 이런 식으로 즐겁게 교육하세요

정리 | 우주양 (난닝목장, 수요찬양팀)



자녀훈계 18계명

1 평소 애 조건없는 사랑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자녀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혹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부모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훈계의 기본 전제입니다.

2 자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훈계를 할 때 부모는 자녀의 마음에 지나친 죄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훈계는 벌이 아니라 행동 교정임을 기억하십시오.

3 잘못은 다루되 인격은 여전히 존중하세요.
인격은 다루지 말고 잘못을 다루어야 합니다. 훈계하기 전에 자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인격 존중의 방법입니다.

4 부부가 한뜻이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훈계를 위해서는 부모 사이에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 중 누가 이 문제를 훈계하여 다룰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이 훈계할 때 다른 한 부모는 한뜻으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훈계하는 것이 훈계의 효과도 높고 자녀에게 안정감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 평소에 부모의 말이 신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훈계를 위해서라도 평소에 자녀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자녀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훈계할 때 높은 효과를 보장해 줍니다.

6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꾸 예외를 만들면 훈계는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7 장점을 격려하는 것도 훈계입니다.
훈계의 궁극적 목적은 자녀의 행동수정과 바른 성품을 키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혼내주고 야단치는 것만 훈계가 아닙니다. 이미 잘 하고 있는 장점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훈계입니다.

8 평소에 책임감을 가르치세요.
가족의 일에 자녀를 조금씩 동참시키는 것은 자녀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9 훈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훈련입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하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훈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0 자녀는 결국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훈계는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델링을 포함합니다.

11 훈계 이전에 가르침과 지시가 분명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훈계를 하기 전에 정확한 가르침과 지시를 제시하는 것은 바른 훈계의 필수조건입니다. 고쳐주고 싶은 자녀의 행동이 있으면 자녀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과 가르침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르침과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훈계를 받는다는 경고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12 부모의 감정 폭발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감정이 격할 동안에는 오히려 기다리십시오. 속으로 하나, 둘... 열까지 세면서 격한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바른 훈계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태도는 단호해야 합니다.

13 사랑의 매는 주로 어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따끔하게 체벌함으로써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매를 통해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 제한과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 사용법 : 주로 어릴 때, 날찍하고 부드러운 매를 준비, 고의적으로 부모를 거역하고 반복적으로 반항할 때 매를 사용, 실수나 성격에 대해서는 매를 들지 않는다. 격함과 분풀이하듯 때리지 말고 차분함과 단호함으로 천천히 때린다. 잘못된 현장에서 즉시 다룬다.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매를 맞는지 잘 모른다. 때리고 나서 10~15분간 포용을 하며 사랑을 표현한다. 매를 정해진 장소에 보관한다. 잘못할 때마다 때리지 말고 부모의 권위와 훈계의 상징으로 매를 사용한다. 부모가 매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 거절감과 두려운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4 문제 행동 이면에 있는 마음과 동기를 살펴주세요.
그러한 행동을 한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 사랑과 관심 끌기 :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끌기 위해 엉뚱한 행동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2) 힘겨루기 : 자신이 보기에 부모가 자신을 제어할 만큼 강하지 못한

다고 느끼면 반항 행동을 통해 어른과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3) 분노 : 비록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자신이 보기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여러 방어적 문제 행동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4) 능력부족 : 버겁기 짝이 없는 부모의 높은 기대를 일찌감치 포기시키려는 무의식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5 다른 사람, 특히 형제(자매)를 놓고 비교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 사이에 경쟁과 미움과 불화를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16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과를 겪게 하세요.
노는데 정신이 팔려 밥을 안 먹었다고 했으면 배고픔을 겪도록 하고, 추운데 옷을 안 입고 나가겠다고 했으면 추위를 겪도록 해야 합니다.

17 마음과 감정에 호소하세요.
자녀가 성장해 갈수록 훈계는 더욱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18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마태복음 6:13) 하는 보호의 기도를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처 | 이기복 교수의 성경적 부모교실 BPS

정리 | 강미영 (편집부)

내 삶의 터닝 포인트

저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두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대학교 시절입니다. 그 이전에 저는 도박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와 사업실패로 큰 빚을 진 어머니로 인해 쉽지 않던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때에는 항상 신나고 행복한 것처럼, 자신감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지만, 친구들과 헤어지고 돌아서서 집에 오는 길부터 우울하고 외로움을 느꼈었습니다. 마치 내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하게 웃고 노래하고 춤추지만 마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들어와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곳에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간사님들 선배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은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었고,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셨고, 무엇보다도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가면을 벗어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생활을 하고 단체에 위탁해서 전임사역자로 살아가다가 두 번째 터닝포인트를 만납니다.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소개로 만난 저희 두 사람은 서로 너무 좋아했고, 1년 반정도 교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분명 더 가까워졌던 20대이지만, 내 안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던 두려움과 의심을 잠재워주듯 내게 신뢰감을 주고,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었던 남편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에 계속 해서 제가 찬양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무엇보다 제가 섬기는 찬양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셔서 아이들을 허락하셨는데, 주일이 되면 항상 남편이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배를 섬기고 있으면 뒤에서 아기띠를 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시간들을 보내다가 저희는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2015년 11월, 남편이 기침이 심해서 잘 낫지 않는 것입니다. 이비인후과, 내과 전전하다가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암이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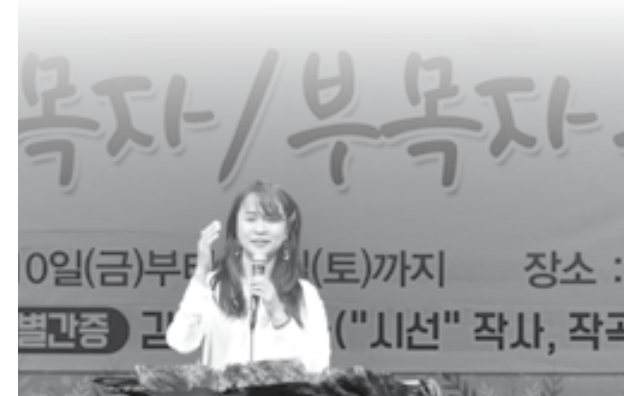
다. 그것도 말기 암. 정식병명은 담도암이었고, 간에 12센티의 큰 암덩어리가 있고, 폐와 복막에도 이미 퍼져있어서 수술불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닥쳐온 소식에 저희 부부는 당황했지만 옆에 있는 아이들 때문에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부동켜 안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며, 병원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 앞에 섰는데, 파노라마처럼 남편과 함께 했던 그 동안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교제를 하면서 보낸 시간들, 결혼, 출산, 육아, 함께 예배하고 밤새 나눴던 비전에 대한 일들.. 어느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참 사랑을 많이 받았고 행복했던 8년의 시간을 보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안 되요. 저는 받기만 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정말 강한 내적 확신을 주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마음 깊숙히 주셨습니다. 저는 달려 들어와서 남편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는 말씀을 주셨어. 걱정 하지마, 우리 살았어'라고 고백했고, 남편은 바로 '아멘'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날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날부터 '영광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청년들과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온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4개월 남았다고 의학적 소견을 주었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프로젝트라고 선포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며, 주신 하루를 감사로 살았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투병생활에 남편은 전라남도 보성의 복내마을이라는 곳에서 요양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평온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자기 생각을 드러내서 말하는 것을 잘 안하던 사람인데, 암 투병을 하면서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다시 주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만드신 큰 계획속으로 들어갑니다'라는 말로 시작된 그의 담도암 일기는 매일 매일 말기 암환자로서 배우는 것들, 삶과 죽

음의 경계에서 느끼는 두려움들을 포함해서 일상의 소중함과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까지 아름답게 채워졌습니다. 항암제를 하고 돌아오면 많이 무섭다는 표현을 쓰면서 솔직하게 나누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 100일에는 자축하는 의미로 감사의 제목들을 나열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는 본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요양하면서, 새벽예배 드리고, 등산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 먹고,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사진도 찍고, 또 그 곳 목사님의 사역도 도우면서 의미있는 날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아프기 이전보다 더 깊은 감사와 행복의 골짜기는 7개월이 지난 시간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장폐색이 왔고,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치열했고, 병원에서도 믿음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위해 매일 소식을 받으며 기도해주시는 500명의 중보기도자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두 달 반의 시간 뒤에 8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호스피스에 있을 때까지 저는 사실 병나가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한번 훑 불어주시면 기적처럼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저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사명을 다했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인간은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했지만, 그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곳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기에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위로해주셨습니다.

아빠를 잃은 지 한 달이 채 안되던 어느 날 밤 자려고 누웠던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왜 아빠를 데려가신 걸까?' 저는 제가 정리한대로 '아빠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해서 데려가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사명이 뭔데?' '응, 아빠 사명은 엄마를 만나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이 세상에 호연이 송연이가 태어나게 하고, 너희를 많이 사랑하는 거,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빠 사명이었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하던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 나라 간 게 하나님 뜻인 거 같아'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으니 아이의 대답은 '내가 6살 때까지는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 생각을 많이 안한 거 같아. 그런데 7살이 되면서 부터 기도도 하고, 하나님 생각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 저는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엄마도 그래, 엄마도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생각을 많이 안한 거 같아. 그런데 아빠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생각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졌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속을 믿는 것, 신실한 말씀을 믿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제가 기대한 것은 다 나아서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기대를 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투병기간 중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눈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뢰하며, 그 분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의 남은 삶도, 그리고 제 간증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삶 되시길 축복하며 간증을 마칠 것입니다.

글 | 김명선 전도사 (목자, 부목자 수련회 강사, '시선' 작가 작곡가)



'목자 부목자 수련회를 다녀와서'

지난 5월 둘째주, 가정교회 목장을 섬기는 목자, 부목자 가족을 위한 수련회가 Scotts Valley에 위치한 Mission Springs 에서 1박 2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3년간 수련회 준비를 담당해 온 남부평원에서는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평원 목사님, 장로님 및 초원 목자, 부목자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팀을 구성하고, 많은 목자, 부목자들이 참석하여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수련회를 통해 잠시나마, 쉼을 누리고, 가정교회의 본질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매달 모여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올해에는 특별히 김명선 전도사님을 초청하여 간증을 함께 듣고, 목자, 부목자로서의 삶을 나누는 시간으로 전체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80

여명의 자녀들과 예복 목장을 포함한 180여명의 목자, 부목자가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 누렸다. 수련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더불어 목자, 부목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특별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각자에게 부여진 수련회가 되었을 줄 믿는다.

개인적으로 이번 수련회에서 예년과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은 8가정이나 되는 예비 목자, 부목자들이 참석하였다는 점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수련회에 참석하였겠지만 그들을 보면서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곳 실리콘 벨리에서 임마누엘 가정교회 목장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또 주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 나라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다. 목장마다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영혼구원의 열정이 쉬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건강한 가정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길 소망한다.

끝으로 이번에 예비목자 자격으로 수련회에 참석한 후 바로 분가하

여 목자로 임직받은 김형준 목자의 수련회 참석 소감을 소개하고 이 글을 마친다.

글 | 정규화 목자 (서부아프리카 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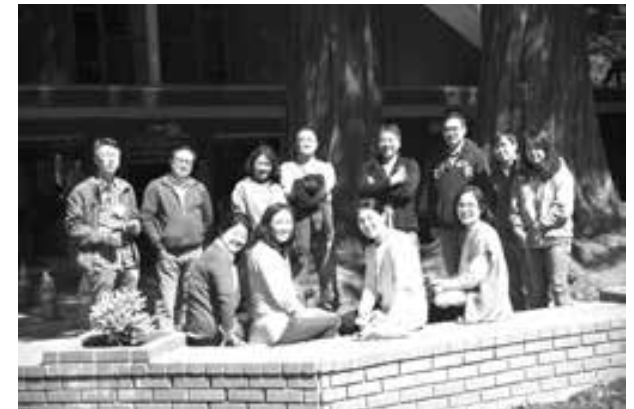
수련회 장소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자 시원한 공기가 마음 속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삶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원함이었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조금 걸어가자 "목자,부목자수련회" 라는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목자로 헌신하고 예비목자로 참석한 저는 이제 정말로 목자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리콘 벨리로 이사올 때 까지만 해도 제가 목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제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임마누엘 교회의 목장을 통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단기선교를 통해 목자로 결심하도록 하셨습니다.

수련회에서는 무엇을 할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김명선 전도사님을 모시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이야기에 웃고 라이브로 듣는 찬양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여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전도사님의 삶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잃지 않고 마음 속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또 사랑받는 사람처럼 전도사님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통해 영적으로 충전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예비 목자라며 작은 선물도 주시며 축복해주셔서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목자의 삶을 시작한 지 1-2달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하니 감사와 기쁨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참목자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원들과 목장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목장예배 가운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앞으로 목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날들이 기대됩니다.

일상에서 전도하며 기도와 단기선교를 통해 열방의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건강한 목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글 | 김형준 목자 (베니목장)



특집 - 당신은 제자입니까?

말씀과 함께 걷는 임마누엘 양육의 현장

- 성경학교
- 여름 성경학교 (VBS)
- 중고등부 제자 훈련 (Disciple Training)



말씀과 함께 걷는 임마누엘 성경학교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은 우리 교회 성경학교에 입학하는 첫 과정이며 또한 가정 교회 성경공부 기본 과정 중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은 누구든지 수강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1998년 가을에 1기가 개설된 이후 2019년 봄 학기까지 21년간 총 41기, 1천여 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생명의 삶’의 구성은 첫째, 명칭 그대로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인 우리의 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복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새 생명을 얻은 후에는 성도로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공부합니다. 또한 속제를 통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스스로 읽으며 자신의 신앙과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실리콘밸리어서 출장이 잦기 때문에 중도 탈락을 거듭하다가 3수, 4수만에 졸업을 하신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또한 성경공부를 즐겨하셔서 두 번 수료를 하고 많게는 6번을 들으신 분도 계십니다. 만삭이 되어 아기가 태어나기 전 주까지 수강하면서 태어난 아기가 둘입니다. 엄마들은 무사히 졸업을 잘 하였고, 아기들은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인도하면서, 부족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일은 어눌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생명의 삶’을 통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글 | 손원배 목사



생명이 넘치는 삶

저는 성경 읽기를 즐기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가장 주된 이유는 성경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 읽는 횟수가 줄었고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9 봄 학기 생명의 삶 수업을 들으며 성경 읽기의 어려움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뀐 과정을 이 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듣기 전, 저는 뒤에 쫓기는 사람처럼 늘 급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해되지 않

음을 늘 불평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작성했을까?”, “제사장 같은 특직 계층만 이해해야 해서 이렇게 어렵나?”, 이런 불평들을 자주 저의 아내(오지연)에게 하곤 했습니다.

생명의 삶 첫 시간에 손원배 목사님으로부터 한 학기 동안의 강의 일정과 성경 속제에 대해서 듣고 저는 “생명의 삶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매주 성경을 4장 또는 5장 읽고 목상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걱정은 성경 읽기가 어렵고 미숙했던 저에게 너무나 당연했던 것 같습니다.

손원배 목사님이 알려주신 성경 속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 읽기 전에 기도를 한다.

둘째, 하루에 성경 1장을 단락별로 나누어서 세 번 반복해서 읽는다.

셋째, 마음에 남는 내용을 적는다.

넷째, 마무리 기도를 한다.

속제할 때는 즐기면서 하고 30분을 넘기지 말라는 목사님의 당부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으로 야고보서, 로마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까지 저의 12주 동안의 성경 읽기 대장정이 시작되었고, 역시 성경 읽기는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수업 날짜는 다가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혀 진전이 없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읽기만 했습니다. 마음에 남는 내용은 없었고 암담했습니다. 이런 곤욕이 없었습니다. 마치 방학은 끝나가는데 방학 속제를 하나도 안 해서 어머니에게 혼나가며 개학 전날 속제하던 저의 어린 시절 같았습니다. 억지로 첫 주 속제를 제출하고 받은 목사님의 조언은 “속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보세요”였습니다.

조언을 듣고 그 날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말을 저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성경을 덮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저에게 성경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를 한 후 다시 요한복음 5장을 펴고 읽기 시작했고 30절 말씀과 31절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30절: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리고 속으로 저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줄의 성경도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그 뜻을 알 수 있구나. 기도로 간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구나.”

성경이 이해될 때 그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쁨을 계속 느끼기 위해 자주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속제로 시작된 성경 읽기는 저에게 점점 소중해져 갔습니다. 하루에 30분,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말씀을 읽으니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감사함으로 죄책감으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저는 저의 크고 작은 문제를 보게 되었고 그에 대한 답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속제의 한 부분을 나누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사옵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늘 그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삶으로 형제자매에게 전하는 생명이 넘치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아멘.”

글 | 기태연 (탄자니아목장, 웹 및 소프트웨어 팀)





새로운 삶



인간을 이해하려는 많은 학문들의 시도들 중에 인간을 사회적, 문화적 존재로 이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인간은 문화라는 틀 속에 살며 문화를 학습하고 보존하며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면서도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자로 이해됩니다. 인간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이 문화라는 말처럼 그 의미가 포괄적인 단어도 없겠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정의하자면 인류학자들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구조화된 관습과 그 기저에 있는 세계관의 가정들에 붙인 이름입니다.

문화는 사람들의 행동과 선택 양식으로 나타나며, 그 행동과 선택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신념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무엇이 좋은지, 유익한지, 또는 최선인지에 대한 가치 체계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입시를 앞둔 수험생,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11학년 학생이 밤 늦게까지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앉아 공부와 과제를 하고 대학 진학에 유리하도록 많은 에너지를 들여 방과 후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것은 교육을 중시하고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좋고, 유익하고, 최선이라는 가치관과 신념의 결과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문화의 중심에는 '무엇이 실재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세계관,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아무런 필터링 없이 학습하고 공유하고 우리의 일부가 되어버린 문화 속에 내재된 가치관들은 성경적이지 못한 신념과 가치를 내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변화되지 못한 채 믿지 않는 자들과 큰 구분없이 때로는 무력하게, 패배감에 젖어서 혹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한 원인은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가치관을 버리거나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예녹 평원에서 체리 농장으로 체리 픽킹을 다녀왔습니다. 비가 많았던 지난 겨울의 영향인지,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늦은 봄인데도 바로 지난 주에 며칠간 내린 봄비의 영향인지 농장에서 따 온 체리는 몇해 전 제 가족들과 체리 픽킹을 갔을 때 맛 보았던 체리보다 당도나 크기가 훨씬 떨

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Bing 체리가 아니어서 품종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다른 해보다 물을 많이 머금은 체리의 당도가 자연스레 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의 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든 그 열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세계관 혹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문화에 입각해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새로운 삶' 과정은 우리 행동과 선택의 뿌리와도 같은 이 가치관, 세계관의 가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가 큰 생각없이 행해온 많은 세속적 관습들을 걷어내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사역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내리지도록 하는 삶의 구성 구성에 왕의 임재를 들여놓고자 하는 시도들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 순위를 두는 연습들을 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실체가 임함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른 지체들과 이루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도 가르치고 교회와 목장 안에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해 주님의 몸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도전하고 실습을 장려합니다.

13주의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운 삶'을 거쳐간 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는 것은 가르치는 자가 얻는 큰 기쁨과 보람입니다. '새로운 삶'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 순위를 지키기 위해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분들, 평생 기도해 온 가족 구원의 응답을 얻으신 성도님, 목사, 부목자로 헌신한 수강생 등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받아 들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길 소원하는 분들을 이 과정에 초대합니다. 예수님의 변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꾸준한 인격적 관계와 사람들의 상호 관계를 통해 사람을 안으로부터 바꾸는 성품의 혁명이요 우리의 생각, 신념, 감정은 물론 몸의 성향과 사회적 관계까지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변혁과 새로운 삶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기를 기대하며 수업에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글 | 조종연 목사



성경적 가치관으로의 변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부터의 시작

첫 시간에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부터의 시작이 <새로운 삶>의 목표입니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교재 가장 앞 페이지에 '가치관을 바꾸자!'라고 커다랗게 써 보며 시작했던 13주간의 <새로운 삶>공부를 마쳤습니다. '이번 학기는 좀 쉬고 다음 학기에 수강할까?' 라는 내 마음 저 밑으로부터 자꾸만 올라오는 소리와 끊임없이 타협하며 수강신청을 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저의 이름이 적힌 수료증을 받고 보니 <새로운 삶>공부를 했던 13주간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 나의 역사가 되었음에 자랑스럽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덜 나태해지고 싶은 나의 마음 하나만을 드리자' 라는 단순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삶 공부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이상의 많은 것으로 저의 작디작은 가슴을 채워 가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 수업은 조종연 목사님의 강의와 랄프 네이버가 쓴 <새로운 삶의 실천>이라는 교재로 숙제를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꾸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가지의 큰 제목으로 들은 말씀 하나가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에 잊고 있었던 저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새로운 삶>공부를 통해 '삶 공부'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 삶에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 '삶 공부'와 '목장'과 '주일예배'에 대해 배우고 느낀 대로 간단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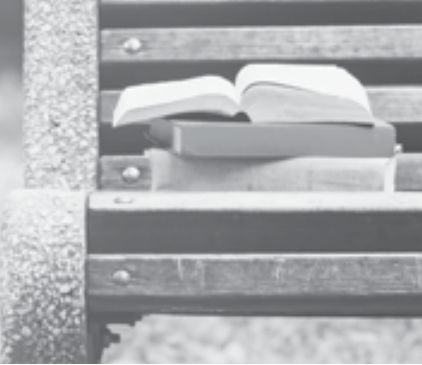
목장

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선민사상 같은 마음이 제 마음 속 한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복이 이스라엘을 통해 만민에게 흘러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을 선택하셨다는 선민사상을 깨뜨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관심이 나를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이유는 <섬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 사역자가 되어 목장을 통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 리더가 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 부부는 그 동안 미뤄왔던 목자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함께 공동체를 세워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것과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새로운 삶>을 수강하며 목자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부부에게 한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밀하시고도 섬세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목장을 섬기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바로 서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고아로 자라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섬기는 목자와 부목자 될 것을 기도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삶 공부

우리가 새로운 삶 공부를 마친 마지막 시간에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한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



으며 너무나 많은 공감이 되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저절로 되는 것이 없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의 노력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야망으로 채우고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으로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던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나라의 크신 일을 이해할 수 없어 계속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분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끊임없이 들려주시고자 교회에서 열어놓으신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준이 올라갔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깨달아 알아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예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무의식 중에 입술로만 고백했던 말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새로운 삶>과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사람이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는데 예배가 우리의 특권이라는 말씀 앞에 가슴 뭉클함이 다시 한 번 전해져 울을 느꼈습니다. 수업 시간에 목사님께서 회중의 30%만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예배의 감격이 전해진다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30%안의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분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에게 예배의 감격을 전하는 사람 되길 기도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새로운 삶>공부를 통해서 예배는 꼭 드려야 하는 것이고, 삶 공부와 목장예배는 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내 작

은 생각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의 4기둥으로 단단히 서서, 주중의 삶 공부를 통해 배우고, **목장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눔으로 맺어진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일에 나와 **주일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을 받는, 3바퀴의 삶이 같이 발달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함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공부를 마치며

<새로운 삶>공부를 통해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국 공동체의 부르심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분배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환시키고 그 속에서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의 작은 포기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 감을 느끼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로 가득 채워진 반짝반짝 빛나는 삶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합3:19)

글 | 이경이 (차드 목장, 새가족부)



경건의 삶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실천해보고 경험해보는 '경건의 삶'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단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과목을 신청하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가질 때 많은 분들이 이 과목을 선택하는 가운데 고민이 되는 한 부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삶'은 단지 기도만 하고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본 성경공부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배양하는 연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공부는 배움이라는 목적하에 많은 것을 적고 듣고 암기합니다. 하지만 '경건의 삶'은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관계를 훈련하기 위해 매주 배운 부분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보는 성경공부입니다.

본 성경공부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삶에서 실천하는 훈련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교재를 사용하며 교재에 나오는 주제별로 매주 적용의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금식의 훈련'은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주제를 정하고 주어진 시간에 금식을 합니다. '예배의 훈련'은 성경공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처럼 주제에 관련된 부분을 한 주간 살면서 가정가운데, 직장가운데 실천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교재에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교재에서 말하는 의미를 깨닫기 위해 실천해야 하며 그러한 실천의 부분을 다시 모일 때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삶'은 규칙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훈련의 장이며,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을 한 번씩 실천해보며, 자아중심에서 타아중심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한 가지 결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한 영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본 성경공부의 특징은 정해진 규칙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원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모임 가운데 이루어진 대화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주며 짝기도를 통해 중보하며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체험에서 우리나온 조연만을 주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모임 가운데 방관자가 없으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변화

는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성도님은 경건의 삶 기간동안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 계시고 삶에서 고민하는 기도제목에 응답을 받으신 분도 계시며, 죄책감과 괴로워하는 부분들에 평안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경건의 삶을 임마누엘 교회에서 다섯 번 정도 강의를 했는데 매 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으며 모이는 그룹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으며 또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과제를 진지하게 알아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글 | 이산돌 목사





확신의 삶

“확신의 삶”은 임마누엘 성경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본 과정 중 4번째 삶 공부이며, 7주 과정입니다. 이 공부는 가정교회 목장안에서 목자/부목자가 목원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목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로 사는 첫 걸음을 바르게 내딛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모든 아래 한 몸, 두가지 속성, 세가지 구원의 단계 네가지 권위의 원천들, 다섯-다섯 원리를 배웁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 목표하는 것은 예수님을 막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의 시간과 말씀 묵상, VIP 찾기 등을 통해 영적 습관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활기찬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새신자만이 이 공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목원들이나 예비목자도 이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의 특징은 일대일로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부목자가 목원을 일대일로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진행합니다. 일대일로 만나기 때문에, 학습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고, 나눔도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고, 열정도 회복하였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자/부목자인 경우는 평원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신청을 하면 되고, 목원의 경우는 해당 목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 유익을 얻기 기대합니다.

글 | 김인환 목사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구원

부목자님과 일대일로 진행되는 확신의 삶 성경공부가 새로 개설되었을 때 언젠가는 확신의 삶 공부를 해보아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부목자님이 하자고 말하기 전에는 최대한 미루어야지 하는 게으른 마음, 정확히 말해 영적인 게으름의 상태였습니다. 목원 자매님의 확신의 삶 1기가 끝날 무렵 부목자님께서는 확신의 삶 공부를 같이 해보자고 권유하셨고 ‘이제 게으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할 때구나’ 생각하면 확신의 삶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신의 삶을 시작할 무렵 저희 가정에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이 어려운 시기동안 확신의 삶을 통해 말씀을 더 가까이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단단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절묘하게도 나에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부목자님을 통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구나 신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감사하였습니다.

확신의 삶 공부는 제게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배우는 시간이기보다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거나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제 모습을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주관하심을 거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였고 우리가 모두 한몸되신 주님의 지체로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자체들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교제의 과정 속에서 내가 깎여 나가야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옛속사랑의 모습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맡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함을 목상하며 유일하고 참된 진리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암송하며 기도의 시간을 우선순위로 정하여 매일 행하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주님께 간구하며 나를 통해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면 앞으로도 일하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 이정은 (과달라하라 목장)



일대일 양육자 과정

우리 임마누엘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는 어느덧 10년이 넘은 화요여성예배 역사와 함께 많은 자매님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자라가는 데 큰 도움을 준 귀한 과정으로 그동안 뿌리를 내려 왔습니다.

‘일대일’은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니라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 적어도 16번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삶의 깊은 부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데 까지 인도하는 귀한 훈련으로 지금까지 쓰임 받았습니.

‘일대일’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자랑하는 성경공부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묵상 훈련 속에서 성장해 가며,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훈련받아야 하는 ‘양육자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목자의 심정을 가진 사역자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가을학기부터는 성경학교 과정에 ‘일대일 양육자 과정’이 편입되면서 ‘일대일’ 사역이 단지 여성사역부에 그치지 않고 교회 전반적인 양육 과정 중에 하나로 확산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분야,

- 1) 목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 또는
- 2) 교회 밖에 계신 VIP들을 대상으로 양육자가 되기 원하는 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저는 지난 두 학기 동안 성경학교에서 양육자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8명 이하의 소그룹 형태로 만나 13주가 넘는 기간 동안 매주 한과, 혹은 두과씩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함께 다루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

동반자와 함께 주님이 계신 동산을 거닐다

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적어도 세가지 질문-

- 1)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 그분을 어떻게 소개할까?’,
- 2)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인가?’,
- 3) ‘어떻게 하여야 온전한 제자로 교회와 세상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들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얻을 수 있다고 감히 확신해 봅니다.

‘일대일 양육자 과정’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제시하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훈련 중 가장 균형을 갖춘 훌륭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1-2절의 말씀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양육하기 원하는 꿈을 가진 성도님들이 함께 주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 박성호 목사



예비부부의 삶 초보결혼 딱지를 떼어드립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변의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셨나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길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데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중이신가요?

결혼이란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될 사람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 또 하나의 소중한 관계가 맺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모든 일이 그렇듯이 결혼이란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에 초보의 단계를 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초보이기 때문에 결혼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새롭게 생긴 남편이라는 역할과 아내라는 역할 속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툴고, 그래서 조심스럽고, 때로는 미숙함에 사고를 내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다고 똑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처음 하는 일의 초보 딱지를 떼려면 좋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예비 부부학교는 그런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가정이란 관계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없애고, 본인과 상대방을 알아가며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을 갖게 하여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게 합니다. 결혼식 이후에 예상되는 문제들인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 소통의 방법에 차이, 재정 관리, 새롭게 확장된 가족에 대한 사랑과 배려, 그리고 성생활 까지 짚어봄으로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관계를 어떻게 가이드 하고 계시는지 함께 이야기 하며 배우는 시간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부터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독신의 은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면 꼭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관계의 복을 알아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비부부의 삶도 꼭 들으세요. 괜한 고생과 후회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 예비 부부의 삶은 7주과정으로 2019년 하반기에는 비전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이산돌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2019년 상반기에 예비 부부의 삶을 수료하신 김상민, 박지혜 커플의 간증을 같이 소개합니다.

글 | 박기한 목사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배우다

10 월 결혼을 앞두고 2019 년 봄학기 예비부부의 삶 클래스를 박기한 목사님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예비부부의 삶 클래스는 말씀 기반으로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결혼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없애고, 나 자신과 상대방을 파악하고, 결혼에 대한 실제적인 개념을 갖게 하여 결혼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7 주 과정으로 한주도 빠짐없이 클래스를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은 무엇인지, 비전, 마찰 극복, 기대, 의사 소통, 가족, 그리고 성 생활의 주제로 공부를 하면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의 기반으로 결혼이라는 주제를 공부할 수 있던 것이 너무나도 유익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결혼의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의 과정이라고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나며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져야하는 기대를 바로 잡은 것 같아 좋았습니다. 또한 지혜와 (예비신부) 함께 클래스를 들으며 각자가 생각하는 비전, 기대, 계획 등 다양한 질문을 서로 적어보고 나누어보면서 상대방의 대한 생각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의 다른 점을 보고 이해할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앞두고 앞으로 평생 함께할 파트너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우리 가정을 기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성장해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글 | 김상민 (박지혜 목사 예비신랑)

처음에 어머니를 통해 예비 부부의 삶 성경 공부 수업에 대해 들었을 때에는 정말 기대가 되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고 아무리 지금 관계가 좋다고 해도 성경적 지식이 없다면 서로에 대해 이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2014 년 부터 교재를 시작해서 수업을 시작 할 때에는 4 년 이상 교재를 했을 때라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많이 싸우는 편은 아니었지만 싸워도보고, 화해도 해 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싸웠을 때에는 늘 같은 이유로 싸웠었다. 이 수업을 듣고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알아냈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방식과 상대방이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고, 서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랑받기 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같은 이유로 싸웠던 것 같다. 그는 나 자신이 아니고, 그는 나의 image 가 아닌 하나님의 image 를 따라 창조된 다른 사람이다. 그는 또 하나의 다른 사람으로 대우 받고, 존중 될 권리가 있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독특한 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서로 존중하며 맞추어가는 방법을 배웠다. 우리가 어떻게 닮았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것에 대해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박기한 목사님을 통해 배웠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의 결혼생활 중 어떤 행동이 더욱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습인가를 먼저 생각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 자신 보다 상대방을 생각 하는 것이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성장 과정이기 때문이다

글 | 박지혜 목사 (청년부, 초등부 교사)



부부의 삶

부부의 삶은 삶 공부 중 하나이며, 생명의 삶을 수강한 분은 누구나 수강할수 있는 선택과목입니다. 성경 공부 위주의 클래스가 아니라, 대화와 나눔을 통해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클래스입니다.

부부의 삶 공부를 권유하다 보면, 첫번째 반응이 문제있는 부부, 불화있는 부부들이 하는 것이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물론, 부부의 삶이 그런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공부이지만, 대부분의 부부들은 더 좋은 부부 관계를 원하는 화목한 부부들입니다.

이 공부에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나이, 연령, 결혼 연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공부를 진행해 보니, 젊은 부부는 예습하는 효과가 있고, 선배 부부도 다른 부부들을 보면서 거울을 보듯 스스로를 돌아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길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남편이나 부인 한 분만 오실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수강해야 합니다. 하나님-남편-아내가 정삼각형의 관계(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공부들과 마찬가지로, 부부의 삶도 13주동안 진행됩니다. 즉, 짧은 시간에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러나, 13주를 만나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부부간에 지속적이고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른 부부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부의 삶은 매주 다른 주제를 공부하고 대화합니다. 같은 주제들을 골고루 터치하는데요. 공부하다 보면, 우리 부부가 이 부분이 약했구나,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자주 듣게 됩니다.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일 15분씩 대화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15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 처음 15분 대화를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 정도쯤이야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금세 15분이 엄청 긴 시간이고, 매일 15분간 대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고백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가면서 길게 느껴지던 15분이 점점 짧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큰 즐거움입니다. 그 말은 부부간의 대화가 점점 친밀해지고, 깊어 진다는 뜻이거든요.

부부의 삶은 전문가가 도와주거나 이끌어 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리드하지도 않습니다. 참여하는 부부가 함께 대화하고 노력하면서, 다른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공부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의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자신감도 세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부부들이 부부의 삶 공부에 참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글 | 김인환 목사

부부 연가

저는 남편과 딸 한 명, 아들 두 명을 둔 이제 곧 결혼 12년차가 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처음 김인환 목사님의 부부의 삶 신청을 권유받았을 때, 남편과 저는 “우리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문제가 있는 부부처럼 보였나?” 이야기 하며 그냥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시어머니께서 한국에서 3개월 예정으로 방문하시기로 하셔서 오랜만에 아이들없이 남편과 함께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서 도피처로 부부의 삶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삶을 처음 수강할 때, 저는 사실 저희 부부에게는 필요가

없는 클래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때처럼 불꽃튀는 사랑과 애정이 이제는 편안함과 약간의 무심함으로 변한 모습도 있지만 10년이 넘는 결혼생활동안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아이들 셋을 키우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삶을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저희 부부에게 결혼생활 중 가장 큰 싸움을 겪게 하셨고 저는 부부의 삶을 중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부의 삶을 수강하면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눈을 마주보며 ‘부부의 연가’라는 곡을 불러야하는데 도저히 남편의 눈을 보며 그 노래를 부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찌 클래스에 참석은 하였고 함께 수강하시는 분들께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신기하기도 하지요... 그 주의 부부의 삶 주제는 ‘배우자와의 대화’였고 그 다음 주의 숙제는 ‘용서’였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같이 너희도 허공써 알아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고전 14:8-9)

제가 남편에게 쉬운 말로 저의 뜻과 감정을 정확히 이야기 하지 않은 잘못들과 그로 인해 싸움을 야기했던 점을 일깨워주셨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엡 4:32) 이 말씀으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며 남편을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부부의 삶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저희 결혼생활에도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닌 혼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다면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완전한 관계가 지속되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한사람 한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다루고 싶어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클래스는 이번에 수강하시는 가정이 9가정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깊은 나눔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규모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묘하게 각 연령별, 결혼기간별, 상황이 다른 커플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듣고 집으로 가는

길은 저희 부부의 과거와 현재, 또한 미래까지 겪은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부의 삶은 하루에 15분씩 배우자와 대화를 해야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분이 별거냐?” 했었는데 의외로 하루에 아무 방해없이 남편과 단둘이 15분 대화를 하는 날이 일주일에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야만 가능한 일 이어서 놀랐습니다.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가정을 꾸린다고 남편과 나의 시간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있었고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두 살짜리 막내를 재울 때 함께 잠이 드는 날이 많아서 남편과의 오붓한 대화시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부부의 시간을 확보해야한다는 생각이 머릿 속에 잡히니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에게도 더욱 충실할 수 있고 남편과 내가 한 곳을 바라봐야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도 자신과 남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어색해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부의 삶을 수강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가정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알고, 서로간에 나누며,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부부의 삶을 수강하면서 저는 부부의 삶 전도사가 된 것처럼 많은 분들에게 수강을 권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직접 하나님께서 가정에 간섭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도 다음 학기 수강을 권유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더욱 더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저에게 이 클래스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글 | 이혜리 (요르단 목장, 카페 운영팀)



기도하는 엄마들 (MIPI)

기도하는 엄마들은 임마누엘 성경학교의 8주간의 중보기도 세미나와 화요여성예배에서 소그룹 기도모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Moms In Prayer International)은 현재 캘리포니아 남부 POWAY에 본부를 두고 총재 편 니콜스와 전 세계 엄마들이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국제적인 기도운동 단체입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의 클래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중보기도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몸소 지킨다
-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 담대히 서도록 기도한다
- 교사들과 직원들을 위해 기도한다.
- 교사, 경영진, 행정직원,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기도한다
- 자녀들의 학교가 성경적인 가치와 높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 운영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 학교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지원을 한다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모임은 두명 이상의 엄마들이 소그룹이 되어 정기적으로 매주 한시간씩 모여 세미나를 마친 엄마의 인도로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모임입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기도방법은

- 대화식 합심기도로 기도합니다.
- 4단계(찬양, 고백, 감사, 중보)로 기도합니다.
- 성경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10의 말씀으로 합심기도하는 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일에 열매를 맺게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첫번째 엄마 : 사랑하는 아버지, _____(자녀 이름) 이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아버지를 아는 것에 자라게 하옵소서”

두번째 엄마 : “예, 아버지, _____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지라도,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번째 엄마 : ” 주님, 두 엄마들의 기도에 동의합니다. _____이가 학교에서의 행동과 집과 교회에서 행동이 다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크리스천다운 행동이 그의 삶 전역에 걸쳐 나타나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두번째 엄마 : “아버지, _____이의 눈을 여셔서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이 축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세요”

후에 구체적인 필요(구원, 성적문제,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문제 등)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글 | 김혜경 전도사



기도하는 엄마, 승리하는 아이

무엇보다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를 하면서부터 함께 기도하는 엄마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감동을 주시어 내면의 무거운 생각들과 지적인 기도가 아닌 말씀의 힘으로 인해 기도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게 됨을 체험하였습니다. 부족하여 할 수 없는 기도를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여 주심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박영수 (GLP 목장, 새가족 환영팀)

기도하는 엄마들의 모임은 단연 내 삶에서 가장 임팩트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몸소 체험케 되면서 불규칙했던 나의 기도 습관들이 매일의 내 삶으로 바뀌게 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므로서 안전함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엄마들끼리 같은 은

혜와 간증을 갖게되며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나 부목자 (뉴랏 목장)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하는 모임을 만났고, 서로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이 대학을 가고 집을 떠난 아이들로 인해 항상 걱정만 하던 저에게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몇년째 교회를 떠난 큰 아들이 기도모임에서 함께 기도한지 1년 만에 교회를 나가며 이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며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매희 (북한 두란노 목장)

올해 저는 큰아이가 곧 킨더를 들어갑니다. 첫 학부모가 되는 길이라 기도로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했던 마이피 모임이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기도방식에 낯설었지만, 먼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후에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말씀에 넣어 기도할때 알 수 없는 따스함이 온 몸에 전해지면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만져지는 것이 느껴지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서나연 (유스 오케스트라 교사)



주님, 우리가 주님의 법도를 깊이 경외하기를 기도합니다. _____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보물 같이 간직하게 하시고, 금이나 은을 찾는 것처럼 지식을 추구하게 하소서. 맑은 정신과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정신과 또 학습 능력을 주소서. 지식과 기능을 숙달하려는 열망을 심어 주시고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_____가 주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그들에게 평안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_____가 부모의 지혜를 존중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게 하여 주소서. 한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하시고 _____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경건한 교사를 만나게 하소서. 교사의 귀움을 받고 교사와 대화가 잘 되게 하여 주소서. 학교에서 성적이 뛰어나게 하시고, 자기가 택한 과목들을 잘 소화하게 도와주소서. 배움의 길을 순탄하게 닦아 주시고, 그 길이 고생스럽고 힘든 길이 아니게 하여 주소서. _____의 두뇌의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연결되게 하셔서, 생각이 맑고, 조직을 잘 하며, 기억력이 좋고, 학습 능력이 높도록 하소서.

주님, _____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하여 알아가는 기쁨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처] 자녀를 위한 무릎기도문 중, 14일 배움의 의욕을 가진 자녀



성경탐구 40일 구약반과 신약반

성경이 어렵고, 성경에 대해 자신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은 성경의 두께에 기가 죽고,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성경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중에도 성경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편적인 지식은 많이 아는데,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거나, 맥을 짚는 것을 힘들어 합니다.

성경탐구 40일 구약반(봄학기)과 신약반(가을학기)은 이런 분들이 성경을 쉽게 알아가는 입문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개괄 클래스입니다. 성경탐구반에서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시대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선,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이나 배경들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또한,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면 중요 사상이나 개념들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는 세 가지 장르로 나누어서 공부합니다. 역사서는 성경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공부합니다. 창조, 족장, 출애굽/광야, 정복 시대 등 10개의 시대를 마치 파노라마를 보듯이 전체 역사를 개관합니다. 시가서는 율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사 시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시적인 기법을 간단히 배우고, 시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합니다. 예언서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서, 시대별 상황과 연결합니다. 역사서 공부를 통해 배운 역사적 상황에 바탕해서 예언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전체 내용을 개관하게 됩니다.

신약은 복음서와 역사서, 선지서로 장르를 구분합니다. 신약의 역사는 짧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일곱가지 주제들을 공부합니다. 대속, 남은자, 언약, 두 갈래 길, 절기, 서원(나살인), 마리아의 노래라는 주제를 통해 성경 전체를 한 눈에 보도록 도와줍니다.

이 공부의 또다른 특징은 수업중에 다양한 차트와 그림과 지도를 통해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매시간마다 다양한 부교재와 파워포인트를 통해

깊이 있게 공부합니다. 특히, 지도 공부는 학생들이 가장 재밌어 하는 시간입니다. 내 손을 직접 지도를 그리고, 지명을 익혀가는게 재밌고, 설교나 다른 성경공부 시간에 익숙한 지명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저희 클래스에는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공부하러 오시는데요. 처음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배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연세 드신 분들도 이 공부를 아주 재밌어 하십니다.

저희는 봄엔 구약반, 가을엔 신약반을 개설합니다. 학생들이 형편에 따라 구약을 먼저 듣기도 하고, 신약을 먼저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 클래스엔 지난번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 섞여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반에 지난번 신약 들은 학생들과 새로 구약 듣는 학생들이 섞여 있게 됩니다. 이것이 클래스에 연속성을 제공하는 큰 장점이 됩니다.

저희 클래스의 또다른 자랑은 식사공동체가 좋다는 것입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데요. 서로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큰 즐거움입니다. 어쨌면 클래스보다 식사시간의 즐거움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부담없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콩나물에 물주기란 말을 자주합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다 빠지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은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신 것을 금방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몇 번 반복하면 되고, 필요한 것은 기억나게 되니까요.

매 학기마다 클래스의 특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약간씩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또다른 분들과 공부할 것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글 | 김인환 목사



지도와 함께 배우는 구약

열공 학생들이 온 마음을 쏟으면서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고있는 클래스입니다.

왕복 2시간이 걸리는길도 '영혼이 갈급하면 힘들지않다' 고 말하면서 매번 질문하실 내용을 20개씩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는 강집사님, 방대한 독서량을 바탕으로 매번 성경에서 보지못했던 이야기를 끌어내서 토론에 열을 올린 반장 집사님, 성경을 3가지씩 비교해가면서, 어떻게 번역이되었나, 혹은 어느구절에 이 스토리가 나오는지 쪽집게처럼 찾아내어 주시던 이집사님, 천국에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면서 슬픔가운데서도 곳곳하게 클래스에 참석해주시고, 기도로 이끌어 주시던 장권사님, 이런 열혈 우등생들을 제치고, 진도를 따라잡기가 벅차서 클래스에 빠지지않고 참석하는것으로 위안을 삼으려는 저에게 간증하라고 떠밀렸을때, "그래. 그냥 들키고말자.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김인환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성경탐구 40일 클래스는 초장부터 확실히 구별된 클래스인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도로 시작해서 지도로 진행되었고, 지도로 끝내는 클래스였기 때문이지요.

선을 그려놓고, 지명을 써놓고, 반복하는 사이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데아 우르가 여기있구나, 혹은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건넌던 홍해,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홍해가 여기, 또 사흘길이면 갈 수 있었던 길, 광야의 40년을 이렇게 빙빙 돌아다녔구나 등등. 성경속에서 글로만 익숙했던 말씀들이 좀더 실감나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지못해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모습, 범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고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배우면서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지명이나 특히 열왕기 시대의 비슷 비슷한 왕들의 이름을 외우지 못하는 저에게 목사님이 "숫자나 지명, 이름을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보다

는 구약전체의 흐름을 보고, 큰그림을 찾아 내시도록..." 하시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전체의 큰그림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할때, 'FM channel 106.9' 에서 들려주는 News 를 자주듣고 다닙니다. 리포터가 뉴스를 시작할때, "What's happening? Why?" 라고 말하면서 그날에 일어난 뉴스를 들려 줄 때마다, 구약 속의 사건들을, 그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리고 왜?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라고 배웠는데, 그 진실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는것이 <복> 이라는것,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죄를 짓는것 이라는걸,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시대, 그리고 포로귀환시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돌아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실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광야> 의 뜻: 그 어원이 '말씀의 장소' 라는것, 그리고 광야의 40년 생활이 하나님께서 훈련 시키시는 시간 이었고, '불편하기는 했어도, 불행한 삶은 아니었다 라는 말씀을 들을때, 마음속에 큰 울림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나 의 관계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 하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클래스가 끝날때는 그날 배운 말씀 중 에서 들을수 있었던 메세지를 마음에담고 돌아갔고, 기도를 할때는 언제나 커다란 감동으로 다음주 화요일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지냅니다.

늦게까지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열공하신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시간 밤길을 운전해서 돌아가셔야하는 집사님을 위해 우리들에게 염려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다섯명의 마음과 학생 5명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시느라고 애쓰시며, 기도로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으로 모아주시는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글 | 윤영숙 부목자 (중국 순회 목장, 편집부)



커피브레이크 커피 브레이크는 말씀과 함께 쉬는 시간입니다

공부는 스스로 해야 하고, 스스로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미있습니다. 성경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며 듣는 설교, 얼마나 기억하시나요? 설교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배우는 사람에게 남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에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기에 성경을 보고 듣고 수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Coffee Break(CB)는 삶을 변화시키는 전도용 성경공부입니다. 삶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그만큼 성경공부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며, 전도용이라는 것은 초신자 뿐만 아니라 비신자도 할 수 있는 성경공부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공부의 가장 큰 특징 두가지는 성경본문 중심의 공부라는 것과 귀납적(Inductive) 학습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중심의 공부라는 것은 인도자가 학습자에게, 또한 학습자들끼리 서로들에게 질문들을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성경을 깊이 관찰하고 고민하여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직접 발견하고 믿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 귀납적 방법을 통한 학습법을 Coffee Break에서는 '자기 발견학습법' 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여 삶에 적용이 가능한 결론에 스스로 도달하는 학습법입니다. 교재에 간단한 핵심질문만 몇개 나와 있어서 부담이 적고, 인도자들이 각 소그룹에 맞는 보충질문들을 만들어 인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은 성경의 진리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성경공부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성경이 이해되고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가슴 벅찬 커피브레이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글 | 박기찬 목사



말씀과 교제를 통한 힐링타임

이번 학기 매주 목요일 아침, 설레임 가득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첫째, 둘째 아들들 학교 갈 준비시키랴, 칭얼되는 8개월 된 셋째 아들 달래랴, 항상 아침은 분주함과 조급함에 화가 났었는데, 목요일 아침만은 정신 없는 가운데도 웃음이 났다.

‘오늘은 또 무슨 성경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할까?’

‘이 질문이 나는 참 어려웠는데, 다른 자매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실까?’

‘김숙경 사모님께서 오늘은 어떤 맛있는 간식을 가져오실까?’ 라는 생각에, 얼른 막동이 아들 업고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를 하러 가고 싶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고등학교 들어갈 쯤, 시험에 들어 크게 방황하며 10년간 교회에 나가지 않았었다. 교회와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잊고 살았다. 그러다가 결혼 후,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아이를 위해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하지만 어릴 때 하나님 말씀과 찬송이 마냥 좋았던 그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말씀이 늘 목말랐고, 첫사랑같이 뜨거웠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리웠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했다.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지고 작은 고난과 역경에도 쉽게 넘어지는 나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의 감동으로 무장하여 일상에서 승리하고 싶었다.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었는데, 성경공부 신청을 받던 기간 중 우연찮게 김숙경 사모님께서 목요일 커피 브레이크에 대해 알려주시며 함께 공부해 보자고 권하셨다. 당시, 이제 6개월 된 막동이 아들 때문에 모든 걸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사모님이

권면하셨을 때도 ‘애가 어려서 안 될거야’라고 포기하는 생각부터 들었다. 하지만 곧이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염려를 내려 놓자.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역경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다. 내가 정말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해보자.’ 라는 막연한 용기와 의지가 생겼다. 그렇게 커피 브레이크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속 성경 공부와 교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은혜와 기쁨을 주는 귀한 시간이었다.

먼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분석하고 의미 찾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다. 그 동안 성경공부는 지루하고 좀 어렵다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박기찬 목사님께서 미리 답을 주시지 않고 계속된 질문으로 우리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도록 하셨다. 스스로 의미를 생각하니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다. 신앙 생활은 길었지만, 성경 지식은 알아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던 구절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 신이 났다. 이런 깨달음의 즐거움과 배움을 주신 박기찬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민이나 걱정을 나누며 서로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위로하며 중보기도했다.

마지막으로 각자 다들 맛난 음식을 가져 오셔서 풍성한 간식 타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김숙경 사모님께서 매 시간 정성으로 귀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매주 목요일마다 행복했다. 입과 마음과 영혼까지 기쁨지고 행복한 힐링 타임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행4:32)”

이번 학기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 그 동안 채울 수 없었던 허전함을 말씀으로 가득 메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교제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나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걸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글 | 황현민 (아프리카 목장, 에녹찬양팀)





적용중심의 큐티

적용큐티가 추구하는 제자상은 마태복음 28:20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삶에 적용하여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이 되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목표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3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1.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 변질시킵니다. 혹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 없습니다.
3.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지 않습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여러분은 위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성경에서 모든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까?

적용큐티에서 본문의 해석 과정은 기존의 큐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둔 큐티입니다.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1. **일주일**에 한번 한다.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고 할까요? 첫째는 큐티가 억지로 하는 짐이 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갈아치우는 우리의 급한 마음을 버리고 한번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며 실천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은 계속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문을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큐티 날짜/본문 정하기** 본문은 우리 교회 큐티 교재인 “생명의 삶”에 따라 정합니다. 제일 시간적으로 편리한 날을 정해 규칙적으로 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요절 찾기** 날짜와 본문이 정해지면 요절을 찾습니다. 요절은 내 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전체의 주제를 가장 잘 대표하는 객관적인 요절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가에 귀를 기울입니다.
4. **본문의 중심 메시지 찾기** 요절을 중심으로 본문의 원저자가 원독자에게 전하려고 했던 중심 메시지를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메시지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5. **하나님의 음성 듣기** 본문의 메시지를 내 삶에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4번까지는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내야 하지만, 5번부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일주일 내내 진행됩니다.
6. **요절암송** 이 단계에서 요절 암송이 강조됩니다. 요절과 본문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머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구체적인 실천을 묻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7. **결론(말씀의 성취/기도의 응답)** 본문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결과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성취되었는지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록합니다.
8. **나눔:** 위의 큐티를 반드시 2인 이상의 교우들과 나눔으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 분별하고 내가 체험한 말씀의 성취를 통해 가정교회 나눔을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식으로 반복하여 13주간 매주 한번 큐티한 내용을 강의 시간에 나눕니다. 결론까지 완성도 있게 큐티할 수 있도록 되풀이 연습하고 나눔 시간을 통해 다른 교우들과 교사에게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봄학기 강의에 총 7분이 수료하셨습니다. 적용큐티가 매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 교우는 숙제를 끝내지 못한 날은 강의 시간에 나오기가 싫어서 몇 번이고 중도에 포기할 마음을 먹

기도 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말씀에 조율해가는 과정 가운데 피치 못하게 나타나는 갈등입니다.

결론: 적용큐티의 최종적인 목적은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맺는 삶입니다 (요14:7-8). 이 과정은 가정교회의 맥락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글 | 이영기 목사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향하여

성경학교 광고를 하던 즈음, 어떤 부목자님의 추천을 받고 이영기 목사님이 이끄시는 성경공부에 참여해 보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 받은 과목은 ‘거룩한 삶’이었는데 그 과목은 없고 대신 ‘적용중심의 큐티’가 있었습니다. 사실, 큐티는 익숙한 주제였고 매일 하진 못해도 혼자서 하던 것인데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어 조금 고민이 되었지만,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큐티라니 배울 것이 있겠지 싶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전 개인 큐티 방법은 이랬습니다. 그날 주어진 말씀을 두어 번 읽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하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해 봅니다. 혹 어떤 기도의 응답처럼 느껴지면 적어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어렵거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묵상이 금세 끝납니다. 그러나 사실 더 큰 문제는 은혜를 받거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제 삶에 어떤 실체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 묵상에 대한 의욕도 점점 사라져 갔고, 하면 좋지만 안해도 별 문제 없는 것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적용 중심의 큐티’는 꽤 새로운 큐티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은 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실천하는 것까지 요구되었는데, 실제로 하려니 들을 때와는 달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쓴 저자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본문에서 ‘요절’을 찾으라는 미션은 어려웠습니다. 일단, 성경 말씀에 요절, 즉 핵심이 되는 주제 문장이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성경아닌가? 그럼 다 중요한거지 딱히 더 중요한 말씀이 있겠나 싶었는데, 있다가 찾아보자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을 때 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더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짐작하고 있는 그 의미가 맞는지 주석성경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모르고 있던 것들을 바로 알게 되면서, 말씀을 읽는 기쁨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절을 찾으려서 제게 찾아온 가장 큰 변화였고, 요절을 발견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좋은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하나 넘나 싶었는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파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2:10)’ 라는 말씀을 받아 묵상을 하면, ‘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어여쁜 사람이구나!’ 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함께 갈 곳’이 어디인지는 하나님께 굳이 묻지 않고, 제가 알아서 정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적용 중심의 큐티를 하면서는 ‘주님, 저와 함께 어디를 가기 원하십니까?’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했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지 않았고, 기다리기 힘들었고, 음성을 분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숙제를 해야 했으므로 실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은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의 본성과 싸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나는 원래 내 삶을 통해 내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 이루어져 제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는 순종을 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성취되길 원하는 거룩한 소망과 큰 배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글 | 한연선 부목자 (쿠칭 목장, 편집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지금도 걸어가는 영생의 길

저는 이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황선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젊을 때의 믿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IMF 경제 위기가 왔고 남편의 사업도 어려워져 생활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맡겨주신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 아이들의 공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으로 올 길을 열어주셨고 거의 20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아이들이 각자 공부를 마치고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나를 사랑하심을 확실히 경험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상황에서 성경공부를 같이 하자는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새 일주일에 6일 일하고, 주일에도 찬양연습, 예배, 목장모임 등으로 바쁜 중에서도 영적인 갈급함으로 화요일, 목요일에 각각 한 과목씩 두 과목을 등록하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함께 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면 신앙적 도전이 되고 생각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

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음성으로 듣는 신비한 현상만 바랄것이 아니라 성경, 기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들을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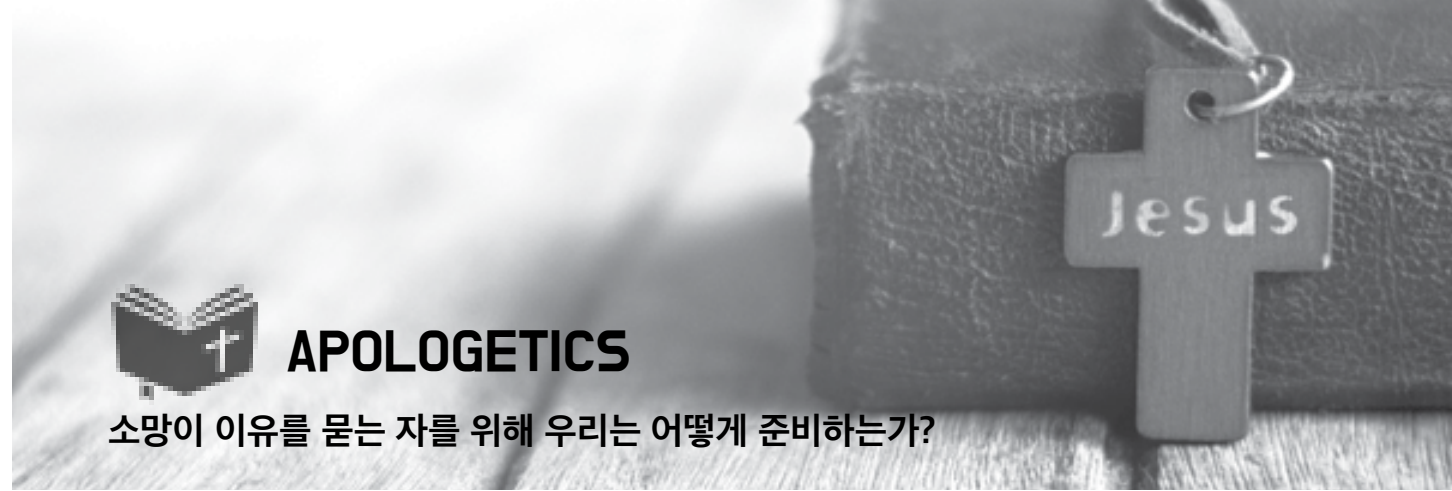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이 주일성수하며 성경, 기도로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 다가 아닌 이미 영생을 얻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영생의 시작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우리를 그 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실 때 믿음의 갈등을 딛고, 조정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데 참여함으로써 경험으로 하나님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됩니다. 먼저 공부로 배운 것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황선희 (스리랑카 목장, 호산나 찬양대)



APOLOGETICS

소망이 이유를 묻는 자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Apologetics 수업의 학습 목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과 대치될 때 변증학의 필요가 가장 부각됩니다. 하지만 변증학을 신앙과 성숙의 자연스런 연장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극단적 크리스천만이 접하는 학문, 지성만 키우는 왜곡된 학문, 혹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에만 공부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증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여러가지 착각에서 부터 비롯됩니다:

- 마치 그리스도인의 지, 정, 의가 말씀을 바탕으로 굳건히 서있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착각
- 마치 자녀들이 중-고-대학교에서 접하는 세속적 교육이 철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중립적일 것이라는 착각
- 마치 직장에 가면 기독교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이 없을 것이라는 착각
- 마치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사회가 사단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을 것이라는 착각

따라서 Apologetics 수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는 것
- (2) 말씀으로 무장하여 크리스천에게 있어야 할 기쁨과 소망을 쟁취하는 것
- (3) 말씀의 진리를 바탕으로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는 것
- (4) 말씀의 진리를 따름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것

주요 내용

수업 1: 개혁주의적 인식론과 변증학 방법론

수업 2: 세계관 분석

수업 3: 진화론과 창조론

수업 4: 교회와 문화

수업 5: 크리스천과 정치

수업 6: 성경적 성윤리

수업 7: 기독교적 신학과 비교종교학

수업 8: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전도 방법론

앞으로 추가할 예정인 수업:

수업 9: 기적에 대한 성경적 이해

수업 10: 기독교와 현대 정체성 전쟁

수업 11: 이단에 대한 이해

수업 12: 기독교인과 사회정의

수업 13: 총복습: presuppositional framework

기대하는 결과

변증학을 들으신 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포함해, 앞으로 많은 분들이 변증학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언 25:2)

글 | 문다윗 목사

VBS 2019 영유아부 | 유치부 | 유년부 | 초등부

임마누엘 2019 여름 성경학교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어린이들이 일년 중 손꼽아 기다리는 여름성경학교가 올 해에도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와 초등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여름성경학교는 특히, 베이 지역에서는 찾기 어려운 영유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도 진행되었으며, 믿는 가정 뿐 만 아니라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 (VIP)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렁찬 찬양과 구호, 기도과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던 나흘 간의 여정에서 하얀 도화지 같던 마음에 그려진 말씀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소개하고, 각 부서의 전도사님과 교사, 학부모 봉사자 분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얀 도화지에 새겨진 복음

“God made me.”

“That’s True! That’s God! Therefore Go!”

인도자의 선창에 따라 찬트에 맞추어 함께 외치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있었던 유치부 VBS는 70여명의 아이들과 40명이 넘는 발렌티어들의 섬김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부 VBS의 공통 주제는 교회의 표어를 따라 ‘Therefore Go’였으며 유치부의 주제는 ‘Jesus Save the World’였어요. 즉 첫날은 “God made me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둘째날은 “God Keeps His word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셋째날은 “Jesus Came for Me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Jesus Saves Me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란 주제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VBS였습니다.

올해의 유치부 주제는 매년 선택해온 출판사와 다른 주제였고, 1월달에 이미 4주에 걸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VBS의 주제로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으나, 제 마음 속에는 VBS를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체 교역자 회의마다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복음을 반복해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손원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VBS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설교 시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세요?”라고 질문한 한 아이의 질문도 이번 VBS를 준비하는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유치부에 속한 만 36개월에서 킨더 아이들은 복음을 이해하기엔 어리지 않냐구요? 아니요. 이번 VBS를 마치고 나니 더 확신이 생깁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들의 마음이라 복음을 더 순수하게 받아들입니다. “I praise you, for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Psalm 139:14)” VBS가 마친 다음에도 집에서나 교회에서 아이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말씀, 그것이 그 증거입니다.

매일 3시간씩 4일 동안, 멋지게 꾸며진 장소에서, 뛰며 찬양하고 주제 구호를 큰소리로 외치며 말씀을 다함께 암송하고 크래프트, 게임, 푸드 크래프트의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배운 복음의 메시지가 유치부 아이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심겨져 귀한 열매를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글 | 유치부 김숙경 전도사



1



2



3



4



5

1. 이노아 (4세) 친구들과 특히 선생님들과 논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2. 최이안 (5세) “형아 선생님들이 찬양팀에서 율동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푸드 크래프트 시간엔 직접 만들고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3. 최영환(6세 VIP) “게임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말씀 중에 비디오 보여주신 것과 별 샌드위치 만든 것이 기억에 남구요”
 4. 이숨(6세) 엄마 오케리 자매님-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숨이 마음에 새겨진거 같아 감사합니다. 뭐가 제일 좋았는지 정확히는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뭐가 그리 신나는지 매일 싱글벙글하며 아이들이 또 가고 하네요. 집에서 교회까지는 한시간이나 걸리는데 말이예요
 5. 우지환(6세) 엄마이며 VBS 발렌티어교사였던 우주양 집사님. ‘Therefore Go’라는 주제로 3박 4일동안 열린 유치부 VBS 하루 중 가장 피곤할 시간 곧 잠자리에 들 시간에 VBS로 온 어린 자녀들이었지만 찬양과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영혼만은 지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역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VBS 마지막날 김숙경 전도사님께서 말씀시간을 통해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친구들에게 예수님 스티커를 붙여주며 안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 자녀들 평생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 비록 VBS는 끝났으나 말씀과 찬양은 우리 자녀의 마음에 심겨져 생활 속에서 말씀을 외우며 찬양을 하며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VBS 그 은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crew leader로 섬길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Life is Wild God is Good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유년부 VBS를 통해 자녀들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성경학교 말씀은 출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기획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소개하며,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 볼 수 있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번 성경학교의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올해 주제 가운데 두 단어였던 Wild와 Good 이란 단어를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풀어 갈지를 기도하게 되었고, 먼저 저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이해를 하였습니다.

Wild = 제멋대로

Wild 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 '제멋대로 구는' 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과, 또한 이스라엘의 삶을 보며 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으로 늘 약속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늘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고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심으로 자녀들에게 나눌 말씀의 전개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매년 VBS를 준비하며 감사한 것은 늘 걱정하고 있던 부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손길들이 협력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도 풍족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이었습니다. VBS를 준비하며 가장 필요한 부분은 VBS 공간을 꾸미는 데코레이션이었는데, 작년보다 사람이 부족할 것 같아 고민을 하고 있던 찰라에 이상은 목장에서 모든 목원들이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매일 도움을 주시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셔서 7일로 계획한 데코레이션의 대부분이 3일만에 끝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매년 기도하는 또하나의 부분은, 선생님이로 봉사해 주실 분들을 많이 보내 주셔서 가능하면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비율이 2대 1로 되면 좋겠다는 기도였습니다. 등록 3주차까지는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해 보여 걱정하던 제 뒤통수를 팽하고 날리시듯이 몽족 선교팀을 유년부에 허락하셨습니다. 약 20-25분이 VBS 4일간을 함께 해 주시며, 주님께서 그 팀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을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나눠 주셨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식사도 학부모팀을 통해 걱정 없도록 모두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합성

총 95명의 자녀들이 등록하고,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81명, 그리고 전도대상 어린이 11명과 함께 VBS 첫날 뜻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찬양이 시작되고, 1학년의 어린이들부터 몽족의 80세가 넘으신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모두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몸으로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어린이들 가운데는 조금 낯설은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무릎 꿇고 찬양 하자고 인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마음으로 품어 주셨습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 자녀들은 매일 매일의 말씀을 배우며,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통해 배운 말씀들을 기억하며 준비된 Station으로 향했습니다.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배우는 Imagination 시간과 음식으로 만드는 Craft 시간, 그리고 Bible Adventure와 게임을 접목한 Station들을 돌며, 그날 배운 말씀을 하나 하나 더 배워가며 듣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자녀들이 외치는 구호인 God is Good은 조금 소리가 작았지만 첫날 끝날 무렵에는 벌써 온 힘을 다해 좋으신 하나님을 외치는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둘째날, 다시 만난 자녀들과 선생님들을 보며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자녀들은 제법 첫날 같은 팀에 있던 친구들과 친해져서 끼리끼리 반성회를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선생님들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 선생님들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는 아이들, 그리고 굶은 장난을 하는 아이들까지 둘째날 시작전 풍경은 마치 제 앞에 펼쳐진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자녀들은 벌써 찬양들을 제법 외워서 다 따라 부르며 율동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찬양 선생님이 구호를 외치자 자녀들의 God is Good의 합성은 여리고를 무너뜨릴 정도로 우렁찼습니다. 둘째날 찬양팀을 바라보며 또한번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인도하시는 김용수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오셔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켜 주시던 선생님, 그리고 그 옆에 Elicia선생님과 Jennifer 선생님은 용수 선생님과 제가 유치부에서 가르쳤었던 3살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유년부를 섬기러 앞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Crew에서 Volunteer로 왔던 Youth 학생들도 모두 예전 유치&K-1부 출신 자녀들 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지금 유년부에서 찬양을 하는 저 자녀들에게 이제 10-15년 후에는 또 우리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교사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또 자녀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귀한 말씀잔치 가운데 둘째날이 마치게 되고, 자녀들은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지만 선생님들은 조금씩 피로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둘째날이 끝나고 잠시 모인 교사기도시간에 함께 위로하며 다음날의 말씀을 또 Preview하고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무 은혜가 넘쳤던 것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하루가 지날수록 더 커지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신실함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고백들이 날마다 울려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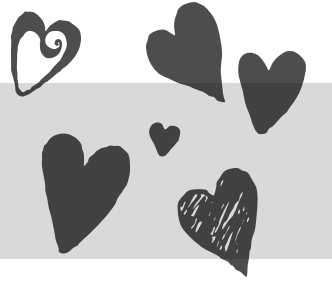
VBS 셋째날, 선생님들에게는 체력적으로 가장 힘든 날이지만, 모든 선생님들은 서로 만나며 '힘들죠', '파이팅 합시다'를 외치며 전혀 지친 내색없이 셋째날에 임합니다. 자녀들의 찬양소리와 율동은 더 커지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분명 우리 선생님들 모두 지치셨을텐데 끝까지 자녀들과 함께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몽족팀 가운데 에녹에서 오신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단 한곡도 앉아 있지 않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

을 과시하며 4일 모든 시간을 완주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게임시간에 자녀들의 웃음 소리와 즐거움을 더해 갑니다. 모든 Station을 돌며 자녀들의 눈은 너무나도 초롱초롱히 빛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고 달콤한 것인지 몰랐어요' 라는 눈빛이었습니다.

VBS의 마지막날인 넷째날, 찬양소리와 자녀들의 에너지는 이미 선생님들을 능가하여 엄청난 힘을 보여 줍니다. 그 작은 입술과 몸을 통해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4일간 자녀들이 배우던 모습을 정리한 슬라이드영상을 보며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시간을 갖고 손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하셨으며 주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 질 수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VBS를 통해 함께 해주신 몽족 선교팀의 헌신적인 사랑이 무엇보다 우리 귀한 유년부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잘 심어지고 자라날 것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유년부 VBS를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신 목장과 목원분들, 몽족선교팀, 안보이는 곳에서 가장 큰 힘으로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 에너지 넘치던 Youth Volunteers와 청년부 선생님들, 그리고 끝으로 부족한 저를 늘 믿고 함께 해주시는 사랑하는 가족 같은 유년부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눈물과 땀방울이 우리 소중한 자녀들 마음 밭에 귀하게 심어지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 있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유년부 송호영 전도사



God is good

God is good~ 하며 엄지 척 올리던 올해의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속에 마무리 되었다. 억울할 때도, 무서울 때도, 많은 변화 속에서도, 슬플 때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심을 배우던 4일간의 여정이 얼마나 신나던지... 우리 팀에 VIP 자녀가 속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더 특별하지 않았다. 사실 1,2학년의 모든 아이들은 VIP가 아닌가?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중한 영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아이들은 영혼이 맑고 깨끗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연약함이 더 잘 보인다. 아직 자기 포장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난히 더 정신 없는 아이, 화가 가득한 아이, 불안한 아이, 폭력적인 아이.. 천사같이 착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안의 죄와 악이 여과지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한마디로 복음이 간절히 필요한 영혼이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VBS는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도구이다. 재미있다. 신난다. 신기하다. 그리고 감동적이다.

그 안에 복음의 핵심을 품고.

올해 VBS 찬양 시간의 백미는 에녹 어르신들과의 함께 함이 아니었나 싶다. 몽족 선교를 가시는 에녹 어르신들이 대거 참여 하셔서 손자, 손녀 뻘 되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찬양을 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이었던지, 세대를 아우른 찬양 시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크루로 참여한 나는 에녹 어르신들을 보며, 저렇게 나이들 어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며 롤모델을 보여주시는 선교팀에 감사한다. 말씀을 들을 때엔 내가 더 신이 났다. 그래, 하나님은 선하

시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억울함이 올라와도, 너무 급변해서 현기증이 나는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도, 누구에게도 하소연 하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차 올라왔다. VBS를 하던 주에는 여름방학을 맞아 집을 떠났던 대학생들이 집으로 돌아오던 때였다. 이국 땅에서 이민자로 살며 아이들을 키우는 나를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아이들과의 문화의 차이이다. 한국인 엄마에게 미국인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의 뜻이 다르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다르고, 서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볼 때 절망한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 처럼 미국 땅에 수년을 살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은 꼭 출애굽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셈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님과 한편이어서 이 힘든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에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른다. 지구의 반대편 아프리카 아이들의 삶을 통해 말씀을 다시 조명해 보는 시네마 시간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하는 시간이었다. 너무 다른 아프리카에서의 삶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풍족한 동네에 사는 우리가 이 많은 것을 누리어도 되나 하는 송구함마저 올라왔다.

언제 어디서나 진리되신 예수님!

게임 시간에는 컴퓨터 게임 밖에 하지 않는다는 아이가 뛰고 구르고 나르며 말씀을 의미를 새기는 감동적인 모습이 보였다. 음원의 합성은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후방 지원으로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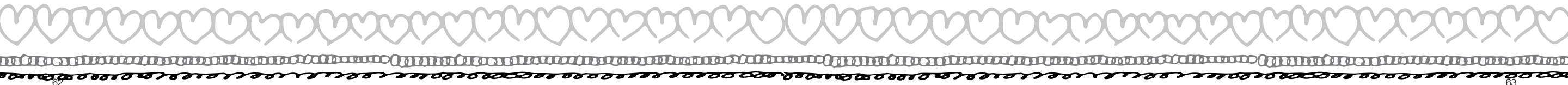
리며! 게임을 통해 몸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이들의 특권이다. 우리집 아이는 이미지네이션 시간을 가장 기다린다. 말씀의 실험실 같다고 할까? 아이의 마음에 신기함이 가득했다. 말씀이 기억되게 준비되는 간식까지 먹으면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영도 배가 부르다.

이렇게 진행된 VBS가 막을 내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VBS의 감동과 은혜의 말씀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어서 행복했고, 아이들이 이런 좋은 말씀을 기억하고 살 것을 생각하면 신이 난다.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며, 소망하는 일이다.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품게 된다. 많은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분명해 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교육이라는 점이다. 최고의 사랑은 예수님을 잘 아는 아이로 키우는 것이라는 고백이다. 또한 소망의 빛도 결국 말씀에서 온다. 우리가 한 믿음으로 말씀의 토대에서 서 있지 않으면 어찌 소망할 수 있으랴. 아이들에게 복음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었던 VBS가 감사한 이유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God is good~

글 | 노은영 부목자
(선봉 목장, Yellow Team Crew Leader)



Jesus, Your Delight!

My prayer for CM VBS was for the children to know that Jesus is their delight, their true joy. True delight comes from fellowshiping with God through Jesus Christ. The gospel message was something CM really needed to understand, so we decided to focus on how to enter into a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trusting in Jesus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The Holy Spirit ministered to the children the message of forgiveness shown through Jesus dying on the cross for our sins. This led the children to forgive others who have hurt them, and now they want to live a new life with Jesus as their risen Lord!

Written by Sarah Nam (CM Pastor)

The sermon was about Jesus forgiving Zacchaeus, Luke 19:10 (I think). I felt so bad for myself so I asked Jesus if he will forgive me and he said yes. When He answered, I felt so glad, I started crying on the way home, I told everything to my mom. She asked me how I knew Jesus said yes and I said that my heart started to hurt but it started to get hot. After that, I started forgiving everyone I've been bad to. Also I've been reading Psalm and this is one of the verses that I thought it was good.

All the horns of the wicked I will cut off,

but the horns of the righteous shall be lifted up. Psalm 75:10

I think Jesus is telling me that I have to not sin and if I sin I have to pray and forgive.

OOO

I learned that Jesus said that not only do I have to believe that He died for me but that I also need to forgive others for what they do to us. God reassured me that no matter what I do, He will always love me and here's my proof.

OOO



I realized how bad CM has treated the teachers and especially the pastor and how much time and effort and love they show us. Instead of praying us back with punishment, they teach us what is right, reflecting what God has done for all of us.

OOO

At VBS, I learned that God forgive me no matter what. I felt sorry for God because

of all my sin. I love God because he died at the cross because of my sin.

OOO

I love Jesus because he loves me. He loves me because I am his son. And he has continuous love for me. He also gives me life, so I am so grateful. This is why I love Jesus.

OOO

I felt Jesus touched my heart and I learned new songs. But most of all, my hands were lifted and I started crying when I was praying and then I felt the love of God struck my heart. I think it was the best time of my life.

OOO

God showed me kindness in VBS by forgiving me for my sin. God also helped me know that He is the only God and how much he loves me. He loves me by creating me and dying for my sin. He showed me this by using Pastor Bryan and Paster Jed. God also helped me receive the holy spirit. Before, I thought I knew and loved God with all my heart. Now that I received him, I believe him with all my heart and I want to learn more about God. I also want God to use me by helping me be a pastor. What I want to do with all my heart is preach the good news to others.

OOO

예수, 당신의 기쁨!

어린이사역부 여름성경학교에 대한 저의 기도는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기쁨,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어린이사역부가 정말로 이해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로했습니다. 성경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의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상처를 입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되었고, 이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번역 | 동원봉 (편집부)

설교말씀은 삭개오를 용서하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복음 19:10 (제 생각에). 저는 저 자신이 나쁘다고 느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건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대답 할 때, 저는 너무 기뻐서 집에오는 길에 울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예수님이 "용서한다고" 라고 말한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고 저는 가슴이 아플 것 같았지만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좋지않았던 사람 모두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시편을 읽었으며 좋았다고

생각하는 구절 중 하나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리라" (시편 75:10) 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하고, 죄가 있다면 기도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OOO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 용서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던,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OOO

저는 저희들이 선생님들, 특히 목사님을 얼마나 잘못 대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사랑을 보여 주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하신 일을 반영하여 무엇이 옳은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OOO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죄에 대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OOO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시므로 저는 예수님

을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자녀이므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계속 사랑하십시오. 제게 생명도 주십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OOO

예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느꼈고 새로운 노래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 할 때 제 손이 들고 울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강타했다고 느낀것입니다. 제 삶의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OOO

여름성경학교 동안 하나님은 제 죄를 용서 해주셨으므로 친절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도와 주셨습니다. 그는 저를 만드시고 저의 죄 사함을 위해 죽으셨으므로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Bryan 목사님과 Jed 목사님을 통해 이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전에 저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을 받아 들였고, 온 마음으로 그를 믿으며 더 많이 하나님에 관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가 되도록 도와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OOO

제자는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한다

갈릴리 해변에서 두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두 어부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 가셔서 다른 두 형제를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마 4:19-22).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자신들의 직장, 재물, 그리고 가족까지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자신들의 생존 목적까지 내려놓고 따라 갔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실리콘밸리에서 축구선수를 꿈꾸는 한 청년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축구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그 청년에게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을 주시며 갈등하게 하셨다. 축구가 전부였던 그 청년을 부르시고 그 청년은 축구를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어떻게 평생 즐기고 꿈꾸며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렇게 한번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한 청년의 스토리는 저의 간증이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저는 유스부를 섬기고 있는 셴김 (Sean Kim) 전도사입니다. 현재 10시 예배에 김승균 목사님을 도우며 같이 25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있는 중학생 제자훈련과 토요일에 있는 학생 리더십 훈련 InReach 아이들을 가르치며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으로 현재 그의 위대함과 필요성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Youth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에게로 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집을 탄탄히 쌓으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삶은 어떤 삶 일까요?

Covenant (언약 혹은 약속)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영생의 길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의 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음을 믿는 삶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에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제자의 복된 삶입니다.

Consistency (일관성 혹은 한결함)

하늘의 상급만 바라보도록 가만히 두지 않는 사탄도 있죠. 영적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축도처럼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을 곳곳이 바라보며 그 약속의 길을 걷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Communication (소통)

그 좁은 길을 자신의 생각으로만 걸어가야 할까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 통해 알리시고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결같이 소통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Community (공동체)

생명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한뜻 한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영생의 약속을 믿고 같이 나아갈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인을 알고 주인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유스 아이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미성숙하지만 신실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부르신 곳에서 그를 찬송하며 즐길 수 있는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글 | 중고등부 Sean Kim 전도사

그림자

이 새벽
주님께 기도 드리니
그 은혜 그림자 나의 영 감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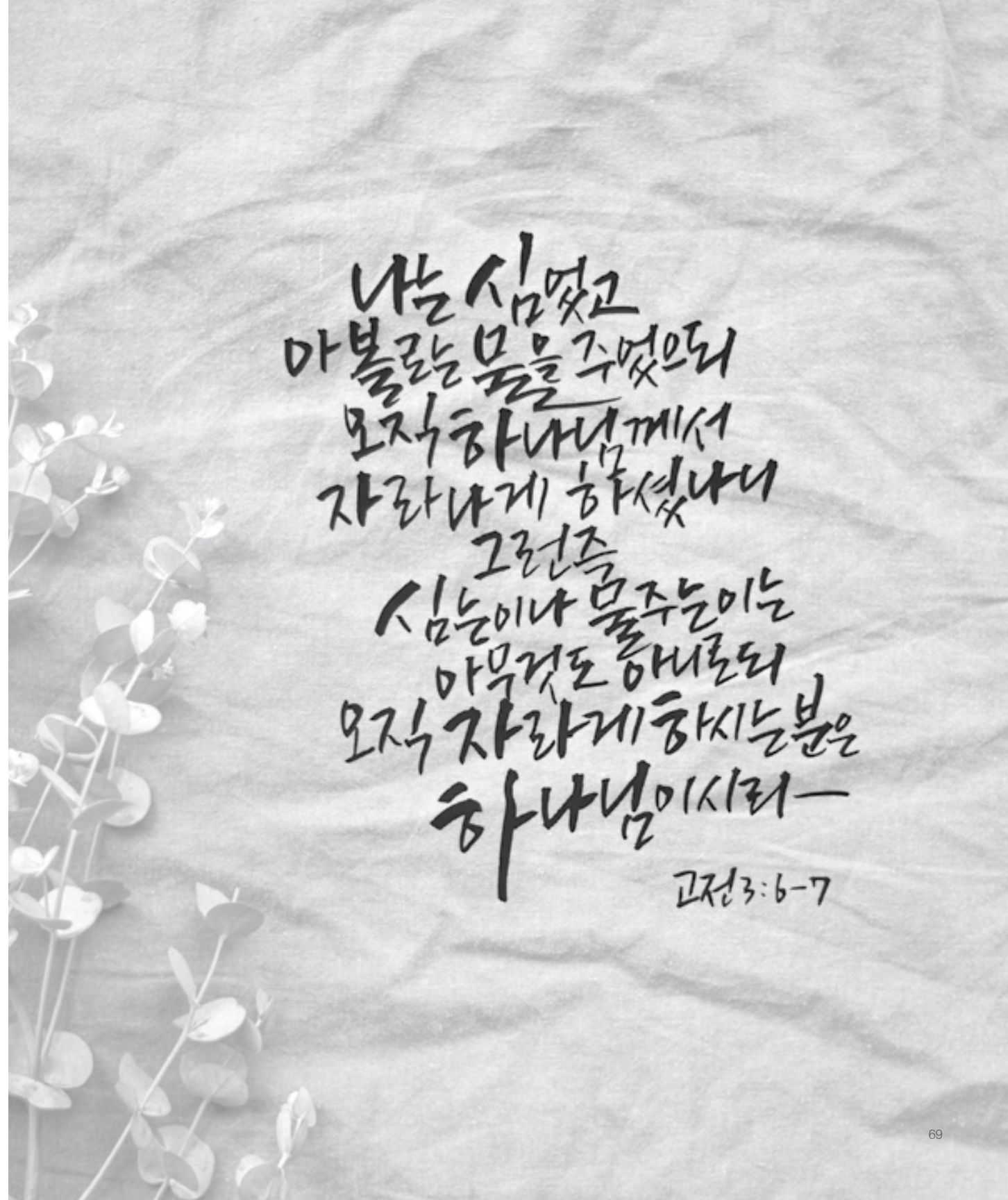
이 아침
주의 말씀 만나니
그 사랑 그림자 내 몸 가리네

온종일
주만 바라보니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
그림자 나를 두르네

이 밤
십자가 목상하니
구원의 그림자 온 땅을 덮고

순종의 날개달고
주님 앞에 서니
영생의 그림자 나를 품으시네

-임광순 (밀알 목장)



나는 시냇고
마블린은 물을 주었으니
모진 하나니께서
자라나게 하시었네
그런즉
시냇이나 물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모진 자라게 하시느분은
하나님이시리—
고전3:6-7

늙은이의 꿈



요즘 나는 잘 때마다 많은 꿈을 꾸다. 내 나이 80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옛 추억들이 모두 꿈으로 표현되어 나타나나보다. 젊었을 때는 꿈이라는 것에 거의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 그 때는 너무 현실적이었을까? 연세드신 부모님이나, 유난스럽게 꿈에 집착하거나 큰 비중을 두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스럽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나 자신도 많이 변화였다.

현재 나의 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부모, 형제자매나 지인들을 만나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몹시 힘들었던 과거 속의 수많은 장면을 담은 꿈이다. 그리웠던 사람들을 꿈 속에서 보면 나는 그 내용이 너무 일상과 같이 자연스러워서 그 속에 같이 존재하고 머물러있고 싶어서 제발 꿈이 아니기를 바란다. 반면 힘겹고 곤경에 처하는 꿈을 꾸면 도저히 해결을 못해서 그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빨리 깨어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이가 들면서 막상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차츰 희미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져 반복을 거듭해야 이해가 되고, 반면 과거의 어느 순간들은 너무나도 뚜렷해서 그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보다가는 문득 자아가 상실되는 느낌을 받거나, 무료해진 지금의 삶에서 지나간 시간들을 붙잡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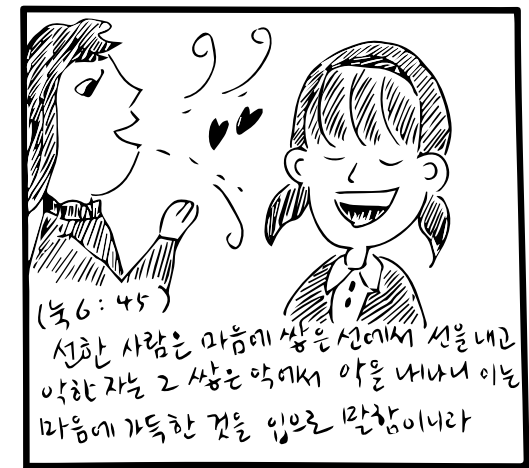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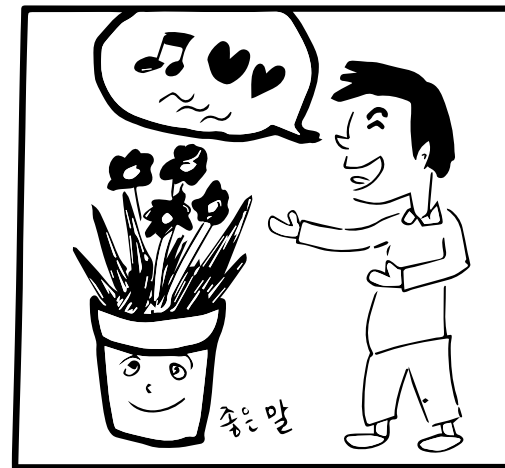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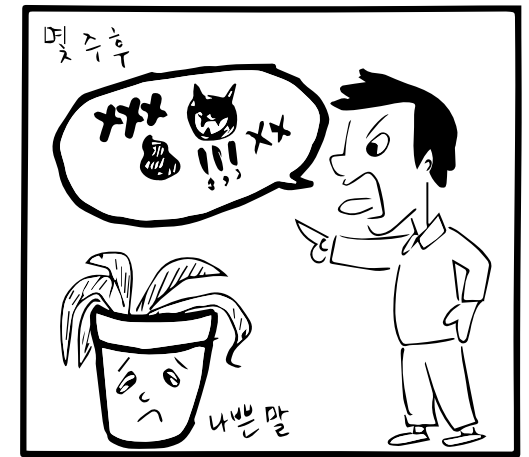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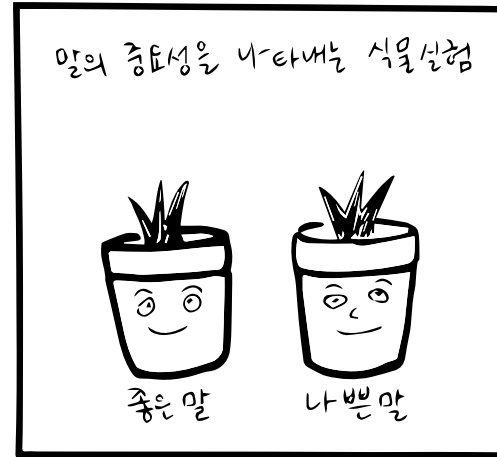
나같은 늙은이는 어떤 꿈을 꾸어야할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답답해하는 나를 일깨워 주신 것 같다. 김진홍 목사님의 아침묵상을 읽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답을 찾을수 있었다.

“말씀하시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꾸리라 (행2:17)”

비록 어린 5살때 서울로 왔지만, 나의 고향은 평양이다. 이 성경구절을 읽으면서 1893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평양 땅에 최초로 남산현 감리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나의 외조부님께서 기와집 한채를 사회교육관으로 기증하셨다는 귀중한 기록과 사진을 본 생각이났다. 주님은 하찮은 일상의 꿈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태함을 입게 하시고 지금도 내 곁에 존재하고 계셔서 임마누엘장로교회의 북한선교 증보기도팀에 까지 나를 넣어주신 주님, 매주마다 북한을 위해 기도와 간구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뜻을 이 우매한 종이 이제야 다시 깨닫고 엎드리오니 “오 주여, 그리하겠나이다.그리고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사오니 부디 제 꿈에도 한번만 봐주세요 하옵소서.” 아멘.

글 | 지경자 (말알 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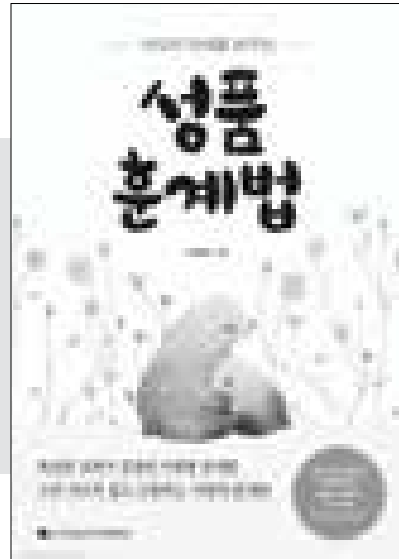
글·그림 | 임명진 (호산나 찬양대)



바울과 선물

존 M. G. 바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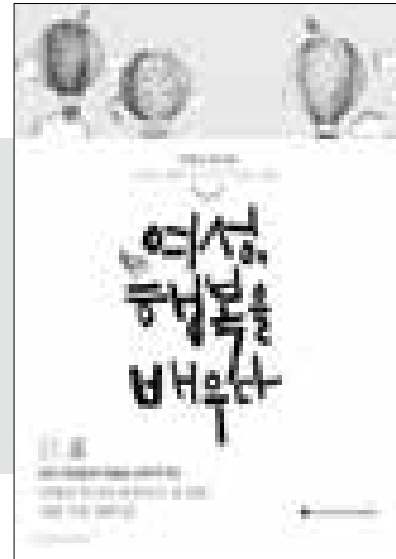
바울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 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경험하는 시간



성품 훈계법

이영숙

수많은 가정이 체험한 '성품 훈계법'의 효과



여성, 행복을 배우다

이영숙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의 선한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따뜻하고 솔직한 성품 치유 멘토링!



오늘이라는 예비

티시 해리스 워러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



만화로 읽는 천로역정

최철규

기독교 최고의 고전 천로역정을 쉽고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는 만화로 만나다!

**믿음유산
자녀양육
사행시**

· **믿**다보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 했지만
산제물로 이 한 몸 바치웁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녀(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이 되지 못한
육신을 거둬주소서
조석제 (중국 곤명 목장)

· **믿**음!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네!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맬 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산 소망으로 나를 만져주시네

자나깨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녀(여)식을 위해 기도 드리네
양순하고 주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라고
육신도 영혼도 땅에서나 하늘에서
잘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엄귀섭 (밀알 목장)

· **믿**음의 식구들 함께 모여
음성 높여 성경보고
유행가 말고 찬송가 부르고
산천 초목 울리도록

자녀들과 함께
녀석들을 위하여
양육하자
육과 영으로 (할렐루야)
박인자 (러시아 목장)

· **믿**는다면서 뭘 믿어요?
음침한 세상에 젖어 살면서
유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산 소망 되신 예수 믿으세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녀석들을 탓하세요
양육은 예수님 말씀으로
육신의 헛된 욕망 버리세요
최정자 B (돈화 목장)

· **믿**음 소망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
음울할 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받고 감사하라
유혹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리치라
산 증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기뻐 찬양하라
최종범 (프레즈노 목장)

· **믿**음으로 살겠노라 수 없이 다짐하면
서도 / 도마처럼 의심하고 / 요나처럼
도망쳐서

음침한 고래 뱃속같은 세상 / 험한 산 길
무엇을 찾아 헤매었나 / 그만 지쳐 올라
쓰러진 나에게

유난히 빛난 흰 옷 입은 분 / 두 팔 벌려 /
“내게 돌아 오라” “내가 있지 않니?” /
다정하신 우리 예수님 음성

산 소망 내게 주시니 / 기쁨과 기도와
감사만이 내게 남았네 / 이 기쁨, 감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 조용히 주님
품에 안기리라

김옥남 (이스라엘 목장)

· **자**기가 잘났노라 장고치고 복치며 /
겸손이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 내 딸
아이

녀(여)자인지 남자인지 / 분간할 수 없
는 망아지 같은 아이 / 하나님 말씀이
그 아이

어루만지니
양같이 순한 아이 되어 /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 / 너무도 아름
다워라

육십년간 걱정하던 근심이 / 구름처럼
사라지고 / 감사만이 남았네요

김옥남 (이스라엘 목장)

· **자**녀들아 모두 모여
녀(여)호와를 섬기매
양을 잃어버린 예수님께서서

육신을 맡기라 하네

자비로우신 주님
녀(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양육으로 인도하사

육신을 거둬주소서

자주 모여 기도하시는

녀(여)러분 들에게
양상추 씹과
육류를 드립니다

김경중 (네팔 목장)

· **믿**음의 터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며

유업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며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라는
녀석들을 마음 밭에 갈고 기경하여
양육의 분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육의 자녀들과 우리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힘써서 자라가세

윤여덕 (러시아 목장)

· **믿**음으로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고
음악으로 매일 매일 예수님 찬양
유월이 되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산으로 높이 높이 올라가고파

자랑스런 임마누엘 교회
녀(여)유로운 임마누엘 성도들
양지바른 곳에서 오손도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찬양

백남순 (밀알 목장)

·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여
유유히

산다는 것에 가치를 육에 두지 않는다

자녀들아
녀(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우
리를

양자라 일컬으셨으니
육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두려울
게 없네

임광순 (밀알 목장)

백범 김구 선생을 읽고

내가 김구에 대해 찾아 읽은 책은 “김구”이다. 나는 김구 선생님처럼 나라를 위해 일을 하지 못했지만 나의 친구를 도와 준 경험 이 있다. 물론 김구 선생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친구를 도와줬을 때 무척 뿌듯했다.

김구 선생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김구 선생님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스물 일곱, 어머님은 열일곱살이었다. 오늘날에 비해 어머니 나이가 어리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정상이었다고 한다. 나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의 도움으로 태어났지만 김구 선생님은 그런 도움이 없어서 어렵게 태어났다고 한다.



김구 선생님의 어린 시절 이름은 김창암이었다. 중간에 다시 김창수 그 후에 김구로 이름을 바꾸셨다.

김구 선생님이 어렸을 적에는 장난꾸러기였다고 한다. 그러나 부모님의 교육과 자신의 결심을 통해 나중에는 아주 의젓해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김구 선생님의 아버지는 말을 안 들었을 때는 회초리로 호되게 다스렸다고 한다. 내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나의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주신다.

김구 선생님은 자라며 공부를 하고 싶어하셨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글방이 없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의 아버지는 사랑방에 글방을 내시고 선생님을 모셨다. 지금 나는 학원을 다니지만 그 때는 학원이 없어서 공부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글방에서도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자, 김구는 혼자 공부를 했다. 그리고 집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 때 동학을 알게 되고 동학의 평등 사상을 알게 되어 바로 동학에 가입하게 되었다.

김구가 18세가 되던 해에 제2대 동학의 교주인 최시형을 만나러 보은에 갔다. 그때 청일 전쟁이 나게 되고 김구의 군대는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면 너무나 무서웠을 것이다. 그러나 김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김구는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가 걱정을 하자 “어머니, 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어머니는 그런 김구를 자랑스러워 했다. 또한 김구 선생님이 일본인들로 인해 감옥에 갇히자 그 안에서 성실히 생활하며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선생님은 나도 존경스러워진다.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황제의 명으로 살아 나게 되었고 감옥 밖의 사람들이 김구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자 선생님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하게 되었다. 그 후 스님이 되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걱정

이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고 자신을 도운 김주경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유인무를 만나 여러 동지들을 소개를 받고 같이 생활 하게 되었다.

김구는 효자였다.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허벅지의 살을 도려내어 피를 마시게 하고 그 살을 삶아서 드시게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 후 김구 선생님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결국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고 김구선생님은 다시 감옥으로 끌려가 갇히고 말았다. 김창수로서 한번, 또다시 김구로서 두번째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올 때쯤에는 그 딸이 죽고 난 후였다. 아버지가 슬퍼하게 될까 걱정하며 딸이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달라 부탁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김구 선생님은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며 더욱 독립운동에 힘을 쏟았다.

선생님이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준비중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 동참하지 못하고 참아내며 중국 상하이로 이동하여 임시정부를 돕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 나라일에 전심을 다했다. 그러나 항상 자신의 아들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자식들을 돌보지 못한 아버지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김구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식에게 쓰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백범 일지”이다.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맡아서 일하는 동안 많은 독립 운동가를 만나고 길러냈다. 그 중 한 사람이 이봉창이다. 이봉창은 일본 천황을 죽이려고 수류탄을 가지고 터트렸지만 실패하여 고문당하며 죽게 되었고, 또 윤봉길은 물로 된 폭탄을 가지고 행사장에 가서 일본의 주요한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중국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독립된 정부와 정식 군대로 인정하게 되는 일도 하셨다.

그러나 광복이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나라의 힘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나라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게 되었고 아무도 김구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김구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지만 헛수고가 되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은 결코 포기 하지 않으셨다.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아침이었다. 김구가 살던 2층에서 총소리가 났다. 포병 장교 안두희가 총을 쏘아 김구를 죽였다. 김구가 총을 맞고 죽었다는 소문이 삼시간에 퍼져 나갔다. 사람들은 무척 슬퍼했다. 너무나 허무한 죽음이였다. 하지만 나라를 세우신 김구 선생님은 또렷이 남아있다. 나라를 사랑한 그의 마음은 아직 사람들에게 남아있다.

만약 김구 선생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책은 사람들을 향한 김구 선생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다. 나도 나중에 커서 김구 선생님께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글 | 이여진 (임마누엘 한국학교, 중급반)



바쁜 아침 간단한 김밥 도시락 제안

길고긴 여름방학을 끝내고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8월입니다. 새학년이 시작되는 이시기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들께도 많은 도전이 일어나는 시간인데요, 그만큼 강한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 자녀에게 선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몸과 마음의 건강함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것도, 자기 안에 모티베이션을 갖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바로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것 다 아시죠?

이번 호에서는 아침을 깨우는 기도만큼 어머니들에겐 중요한 고민인 도시락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킨더가든에 입학하여 친구들처럼 핫런치(급식)를 사먹고 싶다고 조르던 첫째 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 아이가 올 해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6년 동안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졸업할 때가 되니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 유럽 아이들이 많은 아이 학교의 친구들도 부러워한다는, 아이를 으쓱하게 만드는 도시락 메뉴로, 바쁜 아침 시간에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김밥의 변형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도시락용 간단 김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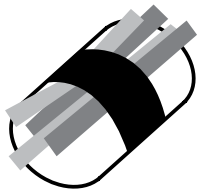
파를 잔뜩 썰어넣은 부드러운 계란 말이 하나만 넣어도 3대 영양소가 골고루 첨가된 간단 김밥 완성! 파 현대 부분을 채썰어 계란에 풀고 소금 간하여 부쳐냅니다. 마요네즈를 조금 섞으면 더 부드러운 계란말이가 완성됩니다. 두어달에 한번 대용량으로 만들어놓은 우영조림은 한번 분량씩 소분하여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전날 밤 실온에서 해동하면 지단과 함께 첨가해도 훌륭한 김밥이 됩니다.



하와이안 무수비

햄을 간장과 설탕으로 간하여 구워내고 밥 사이에 끼어 김으로 묶어내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간단하게 집어먹기 좋아요. 무엇보다도 외국 친구들은 직접 만들어준 엄마에게 엄지척을 보냅니다.

무수비 틀을 구입하셔도 되지만 햄을 꺼낸 통에 밥을 눌러담고 햄, 다시 밥의 순서로 차곡 차곡 담아 빼낸 다음 김을 잘라 돌려주면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간장 소스 대신 데리야키 소스나 메밀장국 소스를 끓여서 사용해도 OK!



스시 모양의 김밥

주먹밥은 자신있는데 김밥을 말 시간은 없다면? 하얀 밥에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 다음 오이나, 당근 등의 채 썰은 야채, 혹은 계란말이, 아보카도, 햄 등을 네모나게 올리고 김으로 돌려 주어 아래로 붙이면 손으로 간단하게 집어 먹을 수 있고 보기에 좋은 변형 김밥이 완성됩니다.

글 | 김연희 (편집부)

'권사 수련회'

권사회에서는 수련회가 지난 4월 26일,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30여 명의 권사가 참석한 가운데 성가대실에서 있었다.

화기에애한 가운데 원탁에 둘러 앉아 섬기는 조별로 앉아 저녁식사와 권사간에 교제 시간을 가졌다.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에는 정혜경 권사 회장 진행으로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알아 맞추며 그러므로 가라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들을 짚어 보았다. 찬양 인도를 맡은 이정미 권사는 짧은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하였으며 이어서 김인환 목사님의 '선교와 헌신'이란 주제 강의에 있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헌신에 권사들이 충성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순서로 합심 기도 시간에는 박옥진 권사 인도로 교회와 당회, 그리고 개인을 위한 기도와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로 수련회 순서를 은혜 중에 마쳤다.

글 | 편집부

'Youth 오케스트라'

임마누엘 유스 오케스트라에서는 봄 정기 연주회를 지난 4월 14일, 아이티 정광 선교사님 돕기 연주회로 가졌습니다.

아이티 선교를 다녀온 학생이 현지 상황을 소개하기도 했으며, 모인 헌금을 아이티에 전달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유스 오케스트라는 4학년부터 12학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장 배준, 지휘 이승진, 피아노 박지현, 바이올린 서나연, 비올라 엄구현, 플루트 조성현, 클라리넷 박현미, 팀파니 김영윤 선생님의 지도하에 약 60여 명이 매주 주일, 오후 1~3시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봄, 겨울 정기연주회가 있으며 양로원 등 외부 연주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전도를 위해 동참합니다.

글 | 홍선희 부목자 (멕시코칼리 목장, 오케스트라 학부모 회장)



영유아부 베이비샤워



산상 기도회



영유아부 세례식

배구 대회



‘에녹평원 호도관광을 다녀와서’

“비 구름을 다른 곳으로 비켜가게 해주세요” 이예스터 전도사님 과 에 에녹회 어른들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셔서, 일기에보의 에는 비가 뿌릴 것 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선선하고, 좋은 날씨에 호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체리밭에 도착해서는 보통 때에 화장실 도 도우미분들의 도움을 받으 시던 어르신들이, 목사님의 안내광고가 끝나기도 전에 체리밭으로 달 려가시는 모습에 깜짝 놀라고, 젊절은 사람 못지 않는능 힘으로 판나다 백을 내리려쳐서, 캔디candy 를 터뜨트리시신 는 어르신들.

웃음이 계속 번지는 고, 모두들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선물도 한아름씩 안고 행복해 하시는 어 르신 얼굴들.

주님 감사 합니다. 내년 호도관광이 기다려 집니다.

정리 | 윤영숙 (편집부)



‘제25회 북가주지역 교회간 친선 탁구 대회’

북가주 지역 교회간 친선 탁구대회는 올해가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베 이 지역에 위치한 교회간 친선 탁구대회 로서 우리 교회가 주최하고 한 국일보가 광고와 기사로 후원합니다.

지난 4월27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뉴라이프 교회에 서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5월 말경에 개최하던 것을 각 교회가 5월에 자체 행사가 많 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4월로 옮겨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 나 4월에도 적지 않은 행사로 인해 참가팀은 기존의 15~6개에서 12개 교회로 줄어 들었으나 몇 교회에서 참가팀이 2~3개로 늘면서 참가팀 은 20개로 예년과 비슷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단체전 우승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해 오다가 작년 2018년은 조이플교회가, 올해 2019년은 뉴라이프 교회가 우승함으 로써 드디어 우승을 나눠 하게 되면서 교회간 화합에 일조를 하게 되 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 회의 성도님들의 따뜻한 후원과 청년부의 행사 보조로 늘 아름답게 대 회를 치뤘습니다. 더 많은 교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로 교회 내외간 친교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데 북가주 친선 탁구 대회가 존귀하게 진행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래는 한국일보에서 행사 관련한 기사와 화보입니다.

글 | 안성호 (친교부 탁구팀장)



‘농구 대회’

지난 6월 제 4회 임마누엘 장로 교회 농구대회가 Sunnyvale 에 위치한 King's Academy 에서 열렸습니다. 그 동안 5개팀이었는데 장년부가 2 팀으로 분가해서 장년부A & B, 비전 청년부, 중등부, 고등부, EM 이렇 게 6개팀으로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치뤘습니다.

농구대회의 목적은

1. 스포츠를 통한 친교
2. 교회의 하나됨
3. 세대간의 연합
4. VIP 전도

6월에 대회를 마치고 임마누엘 교인이면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농구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정기적인 모임도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2시 사이 에 장소 협찬을 받아 뉴라이프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 는 영육간에 건강하여 하나됨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 니다. 할렐루야!

글 | 김동규 목사 (탄자니아 목장, 1부 찬양팀 리더)



주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가요?

제가 몇 년 전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예배 후 아이들의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딸이 너무 어려서 혼자 둘 수도 눈도 땀 수도 없는 때라서 아이들이 예배와 식사 후 자유롭게 뛰어놀고 부모님들은 여유롭게 친교실에서 식사 후 친교하시는 모습이 그저 부럽기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딸이 조금만 크면 나도 꼭 저렇게 자유를 누리야지 하며 기다리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덧 딸아이가 5~6살이 되어가면서 교회에 친구들도 많아지고 엄마가 별로 필요없다고 느껴질 때 서서히 저도 아이에게서 해방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주일날 달콤한 휴식을 만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데려다 주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서 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맘 편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선생님들로부터 아이들을 인수인계를 받고 함께 혹은 각자 점심을 먹은 후에는 집에 올 때까지 딸과 친구들은 자유를 누리며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놀고 저 또한 다른 부모님들과 같이 자유를 누리며 점심식사 후 한참의 커피타임을 즐긴 후 집에 갈 때가 되면 딸을 찾아 교회를 몇 바퀴씩 돌면서 놀 찾으러다니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리 교회를 돌아다녀도 딸 아이가 보이지 않고 딸을 봤다는 아이도 없어서 거의 세시간 가까이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딸을 찾아서 온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들과 불안한 마음과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걸까? 혹시 어디서 놀다가 크게 다쳐서 쓰러져 있는건 아닐까? 아니면 만약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못된 짓을 하거나 무서운 범죄가 일어났다면 이걸 어떻게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채운채 정신없이 온 교회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른채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불꺼져 있는 창고방 안에서 신나게 어린 친구와 놀고 있었던 딸을 찾은 후 집에 돌아오니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는 항상 위험한 요소들은 존재합니다. 아이들끼리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거나 위험한 놀이를 할 수도 있고 화가 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의 특성상 작은 방들도 많고 아이들이 맘만 먹으면 숨을 곳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것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의 눈길, 손길이 닿지 않는 장소들도 많다는 얘기였지요. 구체적으로 나누긴 어렵지만 몇년전 불미스런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번은 어린 아이가 혼자 교회 밖 주차장 도로길까지 혼자 걸어가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생



각만해도 아찔합니다. 다행히 구석진 방에서 놀고 있었던 딸을 찾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 매주일마다 저는 딸아이에게 GPS연결된 전화기를 팔목에 항상 채워서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교회에서 저희 아이만 단속하기란 쉽지 않아서 생각해낸 저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뭐 저렇게까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하나님도 지키시지만 부모인 저희도 지켜야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저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 많이 장난꾸러기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들이 다같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밤 생각한 몇가지 개인적인 방법은,

첫번째, 아이들이 주일학교/소그룹 모임까지 끝난 후에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몇군데 지정해 주고 오직 특정하게 오픈된 곳에서만 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부모님들이 발렌티어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교회 안의 아이들을 순찰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교회에서 서약서 같은 것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혼자 놀다가 혹시나 벌어질지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지만 가장 강조되고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아이는 자신이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의 안전은 여전히 그 부모의 몫입니다. Supervision이 없다고 저희 아이들이 마음대로 그리고 함부로 행동해도 괜찮은 공간으로 교회를 점점 인식하기 이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봐야하는 문제임은 확실합니다.

“주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가요? 아이들은 하나님도 지키시지만 부모인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더욱더 안전하고 즐겁게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글 | 박에스터 (나바호 목장, 영유아부 교사)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깨우는 찬양

새벽에 일어나 생명의 삶이 주는 주제로 QT하며 찬양과 기도로 이어집니다. “내 주 같은 분없네”, “내 주를 가까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어지며 기도가 막히더라도 가사가 흘러 제 마음을 적시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 가사를 들으며 다시 기도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있을때 주님만 바라 보기를 또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에서 새벽기도가 끝나고 회사에 도착해 일을 시작하지만 새벽에 기도를 제대로 못한 탓인지 마음에 답답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며칠 전에 집에 도독이 들어서 경찰 기록을 받으려 하는게 순조롭게 풀리지 않으며 보험처리와 집수리 걱정과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기선교

에 숙제들과 준비할 것들이 마음을 조여웁니다. 내가 자청해서 하겠다고 한 강의, EvengeCube를 암송하는 숙제, 로마서 8장을 외우는 숙제, 찬양 연습, 모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붙잡습니다.

이제 둘째 아이를 곧 출산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살리는 찬양”을 주제로 간증을 쓸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지금 늘어 놓은 이유들이 저를 해방시켜줄 좋을 명목이다 생각했습니다.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려 저의 상황과 부담감을 말씀드리며 요번에는 힘들것 같다고 사과를 드리며 정중히 사양합니다.

한가지 숙제가 없으니 마음이 편할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 책가방을 보다가 박성호 목사님이 쓰신 목회편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교회의 모습”을 주제로 한 글이 제눈에 들어옵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았던 심판처럼 평범하고 도전 없는 신앙 속에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금에 힘든 상황이 있을때 편한길로만 가려 하는건 아닌지 그저 평범하고 도전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아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젊은 자들이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벧전5:5)

주님이 위에 주신 말씀과 같이 윗분들에게 순종하라 하셨는데, 주님이 혹시 권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불순종 한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벌써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린지라 어쩔

수 없지하며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회사일을 마치고 집에와서 하은이를 픽업하기 전에 몸도 찻뽕뽕 하니 이열치열로 조깅이나 가자하며 집밖을 나섭니다. 조깅할때 자주 듣는 찬양을 틀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갑니다. 몇 곡의 찬양이 끝나고 땀방울이 제 얼굴을 적실 때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제 마음에 또 다시 죄책감을 줍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걸게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또다시 “평범하고 도전 없는 신앙 속에서”에 글귀가 생각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지레 겁먹고 주님이 저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포기한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오직 모든 일을 주님에게 맡기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로 나아가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로 걷게 하실텐데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한건 아닌지...달리기를 멈추고 제 전화에 한글 한글 적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들이 포기하고 싶은 저의 육체에 마음을 위로해 주고 담대히 주님에게 나아 갈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걱정 근심 내려 놓고 주님이 인도하심에 능력 부어주심에 하나 하나 해결해 나아갑니다.

이제는 이 찬양들을 들고 세상 거리로 나아가 이 찬양들을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들려주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글 | 김태형 (포카라 목장, 2부 찬양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것처럼...

‘그 때 제자훈련을 받았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며 시간을 흘려 보낸 것이 십수년이였다. 꾸준한 QT 등 경건생활의 습관이 붙어있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 후 청년부 시절에 리더 그룹인 다른 동기들이 우르르 제자훈련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나는 제자훈련은 교육과정의 결정체, 최고 리더그룹들이 받는 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이 급격히 자라고는 있었지만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숙제가 너무 많아 보여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다. 너무 바쁘다며 나중 언젠가로 미뤘다.

그러나 결혼과 임신, 6살 터울 두 아이의 기나긴 육아가 맞물린 학위과정과 직장생활 속에서 바쁜 하루하루를 살면서 경건생활이 무너져갔다. 삶이 피폐해졌다. 말씀 한 줄 안 읽고, 찬양과 기도가 없는 날이 수년간 이어졌다. 당초에 습관이 들어있지 않았던 QT는 연간 행사가 되었다.

결혼 전엔 주중은 아무리 바빠도 주말 이틀 내내 교회에서 보내고, 휴가를 다 끌어 모아 단기선교도 다녀올 만큼 한 믿음, 한 헌신 했던 나지만 나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지쳤다. 우러나오는 기쁨이나 흔들림 없는 깊은 평안은 사라졌다. 제자훈련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작년 12월말 남편이 회사에서 연수 기회를 받아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아직 온종일 붙어 있는 둘째가 있지만 운신이 자유로운 평일이 생겼다. 새가족 환영회를 하며 새로 알게 된 몇몇 자매님들이 화요여성예배가 참 좋다며 오라고 권해주셨다. 나는 알마덴에서 교회를 잇는 고속도로 운전이 무서웠으나 선뜻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소그룹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개강 둘째주였다. 소그룹 등록이 끝난 상태라서 일대일 매칭이 나중에야 될 줄 알았지만 일상천리 적극적인 신디자매님 덕분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신 이해영 집사님과 첫 만남이 당일 이뤄졌다. 순조로운 상황 속에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일대일 제자양육 16차수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 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공과내용 자체는 나에게 새롭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령님은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이 깨닫게

하신다. 끊었던 성경읽기, 기도, 찬양과 말씀암송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이어지고 드디어 QT가 일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스스로에 대한 나의 시선, 가족간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아직은 과거 그 ‘한창 때’의 믿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다. 그 첫사랑의 때가 목표하는 곳 또한 아니다. 다만 꾸준히 더욱 더 깊어지는 예수님과 사랑, 참된 제자의 길을 달려가고자 한다. 끝없는 영적 전쟁이다. 교재 순서도 절묘하게 ‘성령충만’ 다음 과가 ‘시험’이다. 벌써부터 나타해지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아직 성경 읽기는 케도에 오르지 못했다. 운전면허 실기시험과 같은 간단한 문제에도 평안이 깨지는 나를 발견한다. 그러나 ‘하나님,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갑자기 3일만에 시험 예약이 되고 합격하는 소소한 기적 같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

나의 초보 같은 믿음도 이해하고 감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이해영 집사님의 깊은 기도와 정규화목자님, 김인영부목자님을 비롯한 목장 식구들의 기도에도 감사하고, 중보기도팀과 차일드케어 선생님들 외 여러분들께 감사한다. 그 분들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는 어때야 하는가? 선배들이 내놓은 정답은 여럿 있었지만 나는 성경읽기 숙제로 읽었던 요한복음과 요한1, 2,3서에서 답을 찾고 싶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 옆자리에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었다. 추상적으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했을 것이다. 가까이 있고 싶고, 안기고 싶고, 알고 싶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셨는지 알고 느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요한을 어머니를 믿고 맡기시고 복음 전파 사역을 맡기시고 천국을 계시하실 만큼 특별히 사랑하셨다.

나와 우리 가정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아직 모른다. 다만, 나도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을, 그 깊은 사랑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싶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 나의 주 예수님을,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던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그 제자처럼...

글 | 김효진 (서부 아프리카 목장)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처럼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서 기적처럼 가정이 더 행복하고
하루하루 제 삶이 충만해짐을 느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부터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랐으며 고등학교 1학년 때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습니다.

대학을 진학한 후, 교회 다니는 것을 소홀히 하던 중 미국에 어학연수를 하러 잠시 왔을 때, 미국에 사시는 이모가 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어려서 많은 성경공부를 했지만, 성인이 되고 보니 성경 내용도 모르겠고 믿음이 있는데도 무엇인가 교회로 부터 부담을 갖지 않고 다니고 싶은 마음에 항상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 즉 나를 알아보지 못할만큼 큰 교회에서 몰래 들어가 말씀듣고 은혜받고 기도만 하고 나오는 것을 반복하였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미국으로 대학원을 지원했을 때, 금융위기 때 입사를 해야했을 2008년 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고자 했을 때, 항상 원하는게 있을 때만 교회를 다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같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제가 원하는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한단계 한단계 기적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만 놀라워했고, 하루하루 살면서 또 잊고 살아왔습니다.

기도해서 제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었지만 그 기쁨은 짧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의 한결같은 기도와 제 딸 친구 엄마들의 인도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과거처럼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이벤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서 기적처럼 가정이 더 행복하고 하루하루 제 삶이 충만해

짐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믿음이 약할 때도 지켜주셨고 저를 인도해주셨고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013년 결혼을 하고 난 후,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삶과 죽음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탄생으로 새 생명을 보았고 동시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14년전 일본에서 2개월동안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홈스테이 엄마아빠와 인연이 되었고, 지난 14년동안 제 부모님처럼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결혼할 때에도 두분이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홈스테이 엄마가 유방암이 재발하여 이번 주를 넘기기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이사온 지난 9월 집이 정리되지도 않은채 듣자마자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해 주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위해서 믿음을 전달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혜상이 저에게 준 사랑을 받으면서 저는 그녀에게 전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 혼자 하나님을 믿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제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녀의 인생은 조금 달랐을텐데...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책도 잘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말씀이 좋으니 교회에 가자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전도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위에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맡기신 제 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귀하게 말아 기르고 싶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가 받은 사랑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글 | 김윤정 (동경목장)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신생 목장

안녕하세요. 저희 목장은 산호세 평원에 소속해 있는 신생 목장으로, 지난 5월 19일 이정수 장로님 목장에서 분가하였으며, 저는 새로 목자를 맡게 된 조건희라고 합니다. 현재 새롭게 후원할 선교사님에 대해 논의 중에 있기에 아직 목장 이름은 따로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2년 전 2017년 5월 이정수장로님 목장에 처음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출석하는 가정이 총 다섯 가정이었습니다. 그 후 목장의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 여덟 가정이 모이게 되었고, 지난 5월 목장 내 김형준집사님과 제가 목자로 임명을 받으면서 이정수장로님 가정을 제외한 일곱 가정이 두 목장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정을 포함해 총 세 가정이 한 목장이 되었습니다.

저희 목장은 35개월 딸(현엘리)을 두고 있는 현지훈, 하예진 부부 가정과 11개월 아들(방이현)을 두고 있는 방인광, 한정훈 부부 가정, 그리고 18개월 아들(조하준)을 두고 있는 저희 조건희, 원인애 부부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자녀들이 어려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돌보아야 하지만, 언젠가는 이들 가운데 어린이 목자가 나오고, 어린이 목장이 진행될 날들을 기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장 소개 글을 준비하다 보니 저희 목장의 여러가지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목장은 사람들의 나이가 다양합니다. 비록 세 가정이지만, 70년대 생부터 90년대 생까지 존재합니다. 또한 신앙 생활 기간이 다양합니다. 모태 신앙이신 분도 계시지만, 작년에 세례 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의 배경이 다양합니다. 중학교 때 유학오신 분부터 작년에 이민오신 분까지 다양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너무나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어울리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 글을 준비하기 전까지 저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목장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또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다양성이 새로운 VIP 가정을 초대할 때, 그들의 배경과 상관 없이 그들을 허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저희 목장에 속한 가정 들은 모두 같은 지역 주민입니다. 목장 모임 때 모두 걸어서 한 집에 모입니다. 주중에 커피 마시기도 용이합니다.

다. 너무 가까워서 목장 모임을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없습니다. 만약 급작스럽게 한 가정이 못 오더라도 남은 음식을 들고 쉽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지훈 형제님, 하예진 자매님 가정이 체리 픽킹을 가서 체리를 많이 사왔다고 나누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리가 가깝다보니 현지훈 형제님께서 직접 체리를 들고 집 앞으로 배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최근에 하예진 자매님께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새로운 VIP 가정을 알게 되었고, 저희 목장은 그리 어렵지 않게 모두가 같이 그 VIP 가정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니 만남의 부담

도 적고, 종종 마주치기도 하여, 서로의 근황을 알기가 용이합니다.

선배목자님들에게 한가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어떠한 목원들에게 가장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사실 이 글을 통해 저희 목원들에 대한 감사함과 약간의 자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목장은 목원들이 더욱 모이기를 힘씁니다. 방인광형제님과 한정훈자매님 가정은 운동이나 캠핑 등 바깥 활동을 너무나 좋아하기에, 저희 목장 사람들과 다 같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계획에 참여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현지훈형제님과 하예진자매님 가정은 섬김의 스케일이 매우 큼니다. 일례로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 서로의 준비물을 배분하더라도 항상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해오며, 심지어 휴대용 스피커와 배경 음악까지 준비해오는 가정입니다.

이제 갓 시작한 신생 목장입니다. 하지만 목자보다 더욱 훌륭한 목원들과 함께, 많은 VIP 가정들을 초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 받은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목장 내에서 더욱 많은 목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 조건희 (산호세 평원, 유치부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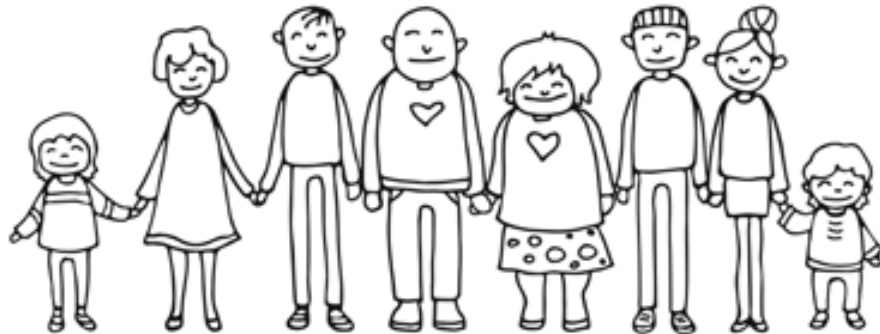
신앙의 3대가 모이는 목장

안녕하세요. 김재원 목장을 소개합니다. 먼저 이렇게 목장을 소개하고 목장 안에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처음 연락을 받고 목장을 자랑하라고 하셔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자로서, 또 부목자로서 저희 부부의 섬김과 기도가 늘 부족함을 알기에 자랑이라는 말 앞에 선뜻 해보겠다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반성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희를 믿고 매주 바쁜 일 내려놓고 달려와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목원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리고 모임 가운데 받은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니 때는 이때! 싶은 마음에 부족한 글로나마 저희 목장을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저희 김재원 목장은 팔로알토와 로스알토스, 그리고 산호세에서 오시는 한 가정을 포함하여 일곱 가정이 모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1식 3찬에 충실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목원들의 정성이 담긴 디저트와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눕니다. 미리 목장진행안을 공지해 드리고 모임의 순서도 목장진행안에 따라 지난 주일의 말씀과 삶에서의 적용, 또 기도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을 매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중 저희가 가장 사모하는 시간은 찬양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기타를 메고 출연히 등장하셔서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형제님과 멀리 산호세에서도 부지런히 참석하시는 피아노 능력자 자매님 덕분에 노래방 반주도 무색하게 할 멋진 반주에 맞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목장의 큰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거기에 성악을 사랑하시는 형제님들의 우렁찬 목소리까지 더해지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는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됩니다.

저희 목장은 삼대가 함께 모이는 목장입니다. 멀리 유타에서 오랜 이민생활을 하시고 은퇴하신 집사님께서 손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이곳에 오셨고 감사하게도 저희 목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까지 함께 하는 목장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선배이고 신앙의 선배이신 집사님의 나눔은 늘 저희 마음에 오래 간직할 만한 값진 말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넉넉히 챙기고 살피시는 사랑과 기도 덕에 늘 힘을 얻습니다. 내리사랑 주시는 집사님처럼 저희도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은 저희의 기도와 사랑이 부족한 탓에 자녀들이 기쁘게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며 겪는 고충과 기도제목을 솔직하게 나눌 때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며 경험들을 나눠주시는 우리 목원들,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는 기쁨을 깨닫고 모이기에 힘쓰는 목장이 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본이 되는 부모의 모습으로 함께 성숙해 가는 목장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나와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더 의지할 수 있는 목장이 되길 기도합니다.

세대로만 삼대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삼대가 모이는 목장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집사님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는 여러 가정과 함께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VIP 가정이 함께 모입니다. 아내 분의 손을 잡고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신 VIP 형제님을 목원으로 모시면서 저희 목장에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신입생을 받은 선배처럼, 또 어린 자녀에게 모범이 되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설렘과 부담과 책임감을 갖고 이전보다 조금 더 긴장하며 모임에 집중하게 되었고 나눔의 시간에 더 진지한 모습으로 삶에 적용한 내용들과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을 더 열심히 나누고 목장과 주일 설교에도 더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이 VIP 형제님을 먹이고 자라게 할 귀한 시간임을, 누구도 얘기한 적 없지만 한 마음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찬양을 찾아 들으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과 삶의 적용을 나눠주시는 형제님 덕분에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의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과 그 가정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며 조금씩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목원들 모두에게 큰 기쁨입니다.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그리고 김재원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날마다 비밀스런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 박소영 부목자 (버마 목장)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대 학부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 소그룹 인도자 및 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하시며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부족한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3년 후인 2004년에 주님은 저희 가정을 미국으로 인도하시어 목자/부목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목자/부목자로서의 삶이 어느덧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함께 목장 생활을 했던 가정들을 생각하며 나열해 보니, 32 가정과 함께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이상 함께한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즐겁고 감사한 시간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가정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가정도 있었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초보목자'였던 시기에는 성격적인 지식으로 또는 나의 노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목원들을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보다는 목자로서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주님은 진로와 재정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낮아지게 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목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오랜시간 동안 저희를 훈련시켜주셨습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대략 1피트 정도됩니다. 참 짧은 거리지만 저희 머리에 있는 지식적인 복음과 사랑을 저희 마음의 진정한 복음과 사랑으로 내리시기 위해 주님은 목장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

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저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보게 하셨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자유함과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 2:5)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목원들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은 것 처럼 주님은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이 참된 자유함은 아무리 훌륭한 목자를 통해서도 주어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진리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 얻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때 목원들을 얽매고 있는 죄인 교만함, 마음의 상처, 강력한 진, 자존심, 불안함을 보게 하셨고,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배우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목원 중에는 지식적으로 받아드리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목원들은 말씀과 나눔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만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저희가 한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모든 자들은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고 어두웠던 자녀들이 밝아지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목자/부목자로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목원들과 그 가정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동일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은 참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되게 섬기는 목자/부목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1)

글 | 심도준 목자 (락스링스 목장)



계간지 '임마누엘'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아래 항목에 교우를 추천하거나 원고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해당 항목에 표를 해주세요. 추천된 목장이나 가정예배는 편집부의 취재 및 인터뷰 혹은 원고 기고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목장 이야기 - 목장 예배를 소개합니다. ()
2. 가정예배 -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가정예배를 소개합니다. ()
3. 에녹과의 만남 - 노부모님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편집부에서 인터뷰합니다. ()
4. 친구 소개장 - 임마누엘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 ()
5. 임마누엘 레시피 - 가족 건강식 또는 목장의 대표 요리를 함께 나눕니다. ()
6. 개인 간증문 ()
7. 시, 수필 ()
8. 자유 기고 ()

추천인/참여를 원하는 분의 성함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추천하시는 목장 및 교우 _____

'임마누엘'지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야기로 엮어집니다.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epcsj.org

(408) 263 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황의철

[기획] 장은영

[편집 및 번역] 김연희 동원봉 유혜석 한연선 형세련 황지영

[사진] 김홍대 맹은희 박순우 박종현 윤영숙

[디자인] 강미영 국세은 윤주영 이지은 임은영 한혁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